

## 참고자료



## 참고

각 각을 더하여 함께 놀다  
Melis Stoke Park

경사로와 함께 벽은 미끄럼틀타기, 벽타기, 터널로 지나가기 등 아동들이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따라서 스스로 다양한 방법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디자인

모든 아이들이 가지는 탐구력에 대한 기대감 충족을 목적으로 계획



통합 놀이시설을 통해 장애아동과 다른 아이들 모두에게 적합한 공간들로 조성

그물그네,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경사로형태의 통로, 높이가 있는 모래놀이대 등으로 장애아동도 함께 이용 가능한 놀이영역으로 계획

넓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여 함께 어울리도록 계획



---

### III 공공건축물

01 적용범위	142
02 진입공간	143
2.1 대지 출입구	143
2.2 보행접근로	149
2.3 주차장	157
03 진입공간	165
3.1 주출입구	165
3.2 로비	173
04 이동공간	177
4.1 복도	177
4.2 실내출입문	187
4.3 경사로	193
4.4 계단	199
4.5 엘리베이터	207
4.6 에스컬레이터	217
4.7 방재 및 피난시설	223
05 위생공간	229
5.1 화장실	229
5.2 다목적 화장실	243
5.3 수유실	249
5.4 욕실 · 샤워실 · 탈의실	255

---

## 01 적용범위

### 적용범위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을 비롯하여 기존 공공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건축,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있을 경우, 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정비하도록 한다.

향후 모든 시민을 비롯한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건축물의 신축 시에도 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정비해 나갈 것을 권장한다.

### 적용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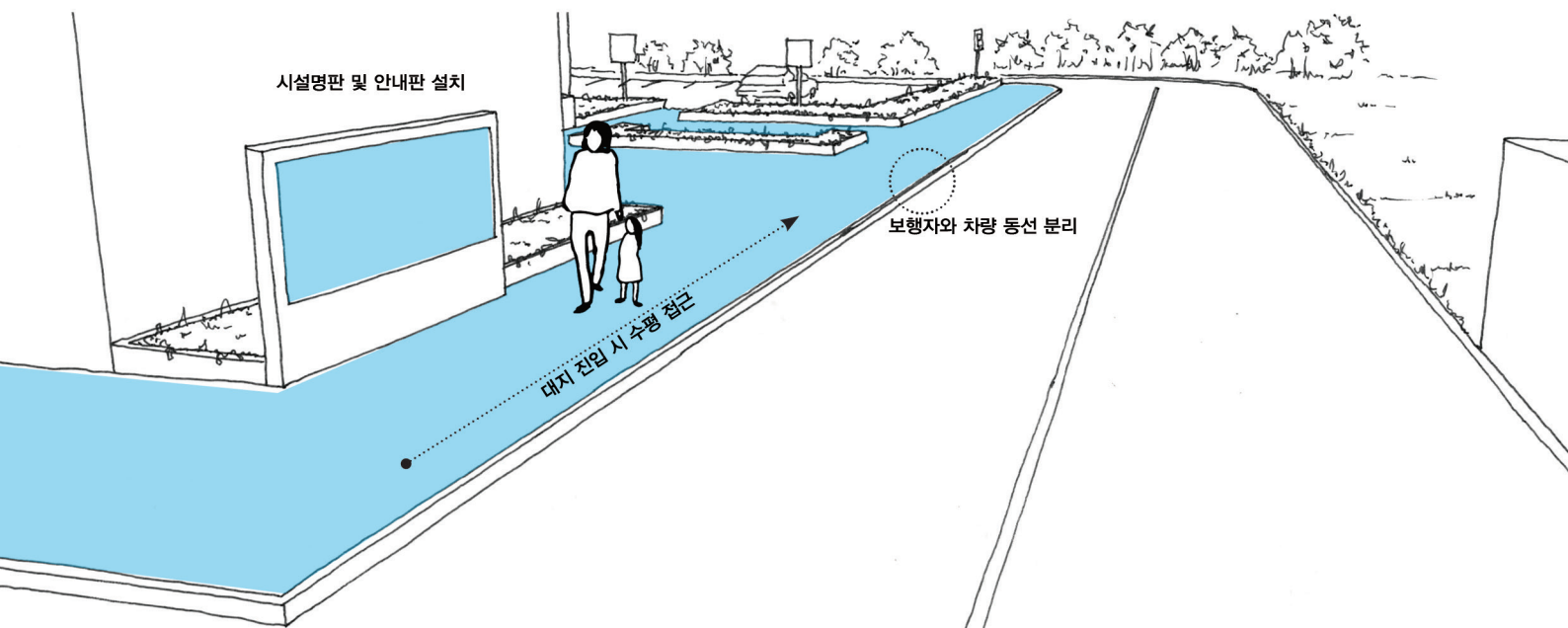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공간은 공공건축물을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공간으로 접근공간, 진입공간, 이동공간, 위생공간을 그 정비대상으로 지정하여 공간별 기본지침과 세부 설치기준을 수립한다.

접근공간은 이용자가 공공건축물을 이용하기 위해 가로에서 출입구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대지 출입구, 보행접근로,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진입공간은 건축물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여 이용되는 공간으로 주출입구, 로비를 대상으로 한다.

이동공간은 로비에서 목적공간에 다다르기 위해 이동경로로 이용되는 공간으로 복도, 실내출입문, 경사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방재 및 피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위생공간은 건축물 위생적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화장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수유실, 욕실 · 샤워실을 대상으로 한다.



## 02

## 접근공간

## 2.1 대지 출입구 &gt; 기본지침

## 01

공공건축물을 방문하는 이용자를 위해 보행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지 출입구의 위치 선정

## 02

이용자가 도로에서 건축물 내부까지 원활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대지 내 · 외부에 시설명판, 안내도, 출입구 사인 등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서 제공하는 연속성 있는 정보체계 설치

## 03

공공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건축물은 폐쇄적인 담장이나 울타리 대신 식재 등을 이용하여 개방감 있고 친근함을 주는 옥외공간으로 디자인

## 04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시한 대지 출입구 계획

## 05

보도와 대지 출입구와의 경계부분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의 연속성 확보



## 2.1 대지 출입구 > 위치

### 알기 쉽고 접근하기 좋은 위치

도보, 자전거, 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하여 대지 출입구의 위치를 결정한다.

대지 출입구는 개방감이 있고 도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보행자도로 체계와 연계한다.

대지 출입구에서 건축물 주출입구나 매표소 등의 위치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복수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에는 정문까지 이용자가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후문 등 부출입구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보행접근로와 차량 출입구는 분리하여 설치한다.

### 가로와의 관계

인접 보도와 대지내 보행접근로와의 경계부분에는 단차없이 평탄하게 마감한다.

차량 출입구 설치로 인해 인접 보도에 높이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외부와의 단절을 야기시키는 담장과 펜스의 설치를 지양하며, 안전 및 관리상 필요시에는 투시형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도록 권장한다.

대지가 협소하더라도 주요도로나 보행로에 면하는 대지 외곽부분에는 시민들을 위한 썬지공원, 친수공간 등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가로와 연계되는 계획을 권장한다.

## 참고자료



### 권장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분리된  
대지 출입구



### 권장

보도와 대지내 보행  
접근로와의 단차없는 경계

## 2.1 대지 출입구 > 안내

### 안내 및 유도

가로에 설치하는 시설안내표지판은 주변 환경과 독립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쉽게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이나 대지 입구에는 멀리서도 쉽게 인식되는 시설 명판, 출입구 사인 등을 설치한다.

안내도에는 건축물까지의 거리나 소요시간을 표시하여 거리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시설안내표지판의 설치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과 건축물이 떨어져 있는 경우, 건축물까지의 접근경로 위에 대지전체 배치를 이해할 수 있는 안내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차장출입구 등 진입을 위한 주요 장소나 사인의 설치만으로는 혼란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안내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인적 서비스도 고려한다.

시설을 방문하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병기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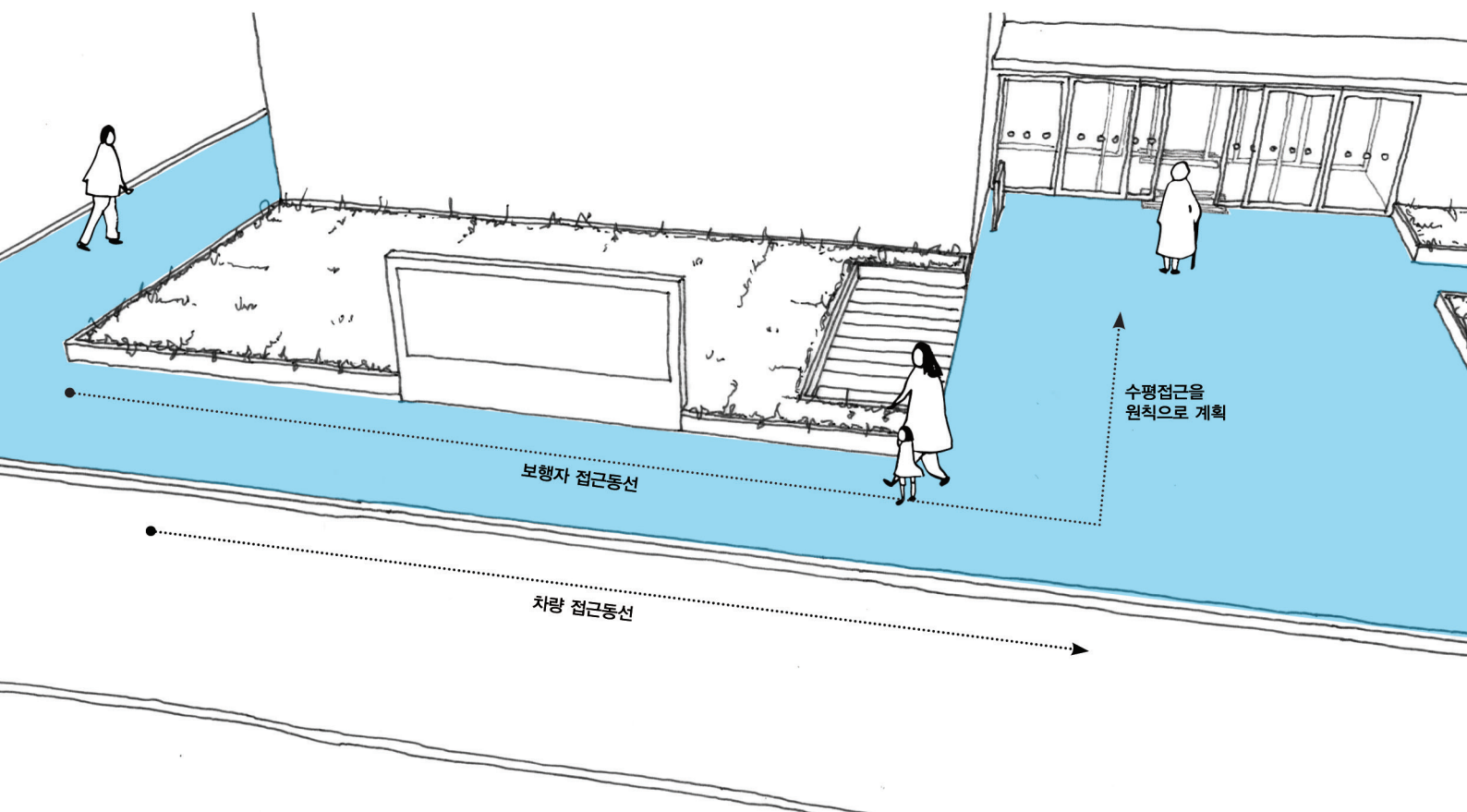
## 참고자료



### 권장

멀리서도 쉽게 인식되는  
독창성 있는 디자인의 시설  
명판





## 2.2 보행접근로 > 기본지침

### 01

비, 눈 등 악천후 시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자의 이동경로에 계단이나 경사로는 물론 작은 단차도 없도록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로 유효폭과 바닥 마감 등에 유의

### 02

보행접근로에 부득이하게 단차가 있어 계단,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손잡이, 주의환기용 점자블록 등을 적절하게 설치

### 03

건축물의 주출입구로 이어지는 보행접근로는 다양한 유형의 방문자들이 이용하므로 차량동선과 명확히 분리하여 차량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통로 확보

### 04

보행접근로에는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 조명을 설치하며, 에너지소비가 적은 LED 조명을 적극 활용

### 05

보행접근로 및 대지내 통로는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안전한 피난통로가 되도록 계획



자세한 사항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 높이의 최우수 기준  
2.5m 제시 참조

## 2.2 보행접근로 > 유효폭과 높이

### 유효폭

보도에서 건축물 주출입구에 이르는 주요 보행접근로는 우산을 쓴 사람,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동반자 등 2명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보행접근로 전체 구간에 걸쳐 유효폭을 2.5m 이상 확보한다. 편의

주요 보행접근로 이외의 대지내 통로는 유모차 동반자나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위해 다른 보행자가 비켜설 수 있도록 최소 1.2m 이상으로 하되, 휠체어의 방향 전환이 자유로운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편의

보행접근로의 유효폭 내에는 가로등, 전주, 간판, 이동식 화분, 식재, 안내사인 등 보행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편의

보행접근로의 유효폭 양측 가장자리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0.3m 이상의 색상, 질감 차이를 이용한 경고용 바닥재를 설치한다. 건축

### 유효높이

우천시 등 우산을 쓰는 경우를 고려하여 보행접근로의 상부에는 지면에서 높이 2.1m 이내 가로수 나뭇가지나 안내사인 등의 상부돌출물이 없도록 한다.

## 2.2 보행접근로 > 바닥마감

### 단차없는 접근로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시각장애인 등은 물론 일반 이용자들도 부주의할 경우 작은 단차에도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행접근로는 단차 없이 평탄하게 설치한다.

인터로킹 블록 등을 바닥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마감재 간의 높이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높이로 시공한다.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유효폭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8m 이상

법적기준 : 유효폭 1.2m 이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효높이

법적기준 : 최소 유효높이 2.1m 이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우수 BF인증기준 : 보행안전구역 유효안전높이 2.5m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참고자료



## 지양

보행접근로의 불명확한 경계



## 권장

보행장애물이 없는 여유 있는  
폭의 보행접근로

## 완만한 기울기

지형 구조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모차나 짐을 가진 사람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상하 기울기 1/24 이하, 좌우 기울기 1/50 이하로 설치한다. <sup>편의</sup>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30m 마다 안전 및 휴식을 위해 1.5m × 1.5m 이상의 휴게참을 설치한다. <sup>편의</sup>

## 바닥포장재

지나치게 다양한 패턴, 색채, 재질을 사용하여 조잡하지 않도록 간결하게 한다.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주조색은 무채색으로 한다.

보행접근로와 대지 내 차도의 바닥포장재는 질감과 색채를 달리하여 시인성을 높이도록 한다.

바닥표면은 우천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처리가 된 마감재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sup>편의</sup>

침수 및 물고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투수블록 등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한다.

보행접근로에는 미관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맨홀을 설치하지 않는다.

인터로킹 블록 등 이음새가 있는 바닥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그 이음새에 유모차 바퀴, 지팡이, 하이힐 등이 빠지지 않도록 줄눈간격은 0.5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sup>BF</sup>

## 배수

배수로는 보행접근로를 가로질러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up>건축</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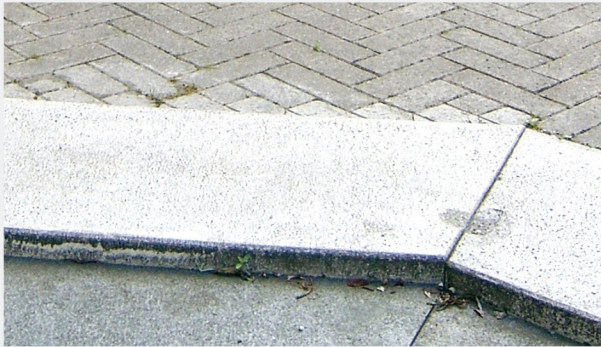
부득이하게 보행접근로에 배수로를 설치할 경우, 배수로 덮개는 격자구멍 등의 틈새가 없는 것을 사용하며, <sup>BF</sup> 그 덮개의 마감재는 보행접근로와 동일한 재료를 권장한다.

배수로 덮개의 표면과 보행접근로 마감면은 보행에 지장을 주는 높이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높이로 평탄하게 마감 처리한다. <sup>BF</sup> <sup>편의</sup>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단차없는 접근로	최우수 BF인증기준 :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법적기준 : 단차 2cm 이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완만한 기울기	최우수 BF인증기준 : 기울기 1/24 이하 법적기준 : 기울기 1/18 이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닥포장재	최우수 BF인증기준 : 줄눈 간격 0.5cm 이하
배수	최우수 BF인증기준 : 구멍이 없는 배수로 덮개 법적기준 : 배수로 덮개의 틈새 간격 2cm 이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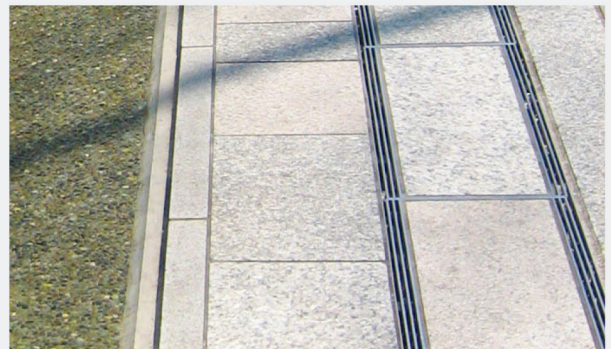
**지양** 2cm 이상의 단차가 있는 보행접근로



**권장** 단차가 전혀 없는 평탄한 보행접근로



**지양** 격자 간격 2cm 이상의 배수로 덮개



**권장** 간격이 좁고 바닥마감재와 높이가 동일한 배수로 덮개

## 2.2 보행접근로 > 보차분리

### 보차분리

보도에서 건축물 출입구까지의 모든 보행접근로는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차량으로 인한 간섭을 전혀 받지않고 건축물 내부로 진입하는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보행접근로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접근의 연속성을 우선시한 구조로 한다.

보행접근로에 인접하여 대지내 차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부분에 연석, 울타리,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여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편의

지형상의 이유로 보도에서 건축물 주출입구까지의 보행접근로를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할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한다.

## 2.2 보행접근로 > 유도 및 안내

### 점자블록

자세한 사항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세부기준 :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16.점자블록 항목 참조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점자블록 대신에 바닥포장재의 질감 차이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등이 쉽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건축

계단 또는 경사로 등 바닥높이의 변화가 있는 곳과 방향을 전환하는 지점에는 바닥재의 색상 또는 질감 차이 등을 이용한 경고장치를 설치한다.

### 안내

자세한 사항은  
안내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축물 인증제-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13 참조

사용자가 승강시설 및 이동시설을 상황에 따라 이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 하여 이동을 위한 2차 경로안내를 표시한다.

건축물 내 이용가능한 이동설비를 진입부에 표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건축물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쉽도록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 대지 출입구 부근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승차대 등 대중교통수단의 위치를 알리는 주변안내도를 설치한다.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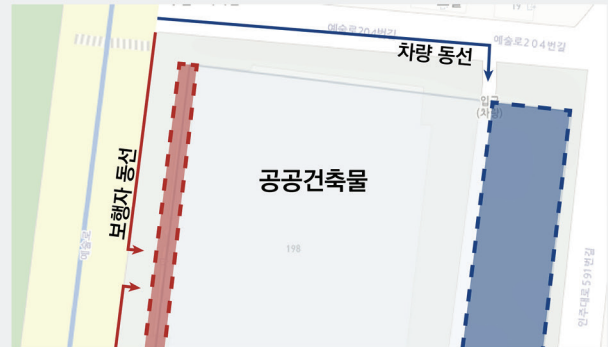
보차분리

최우수 BF인증기준 :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 이상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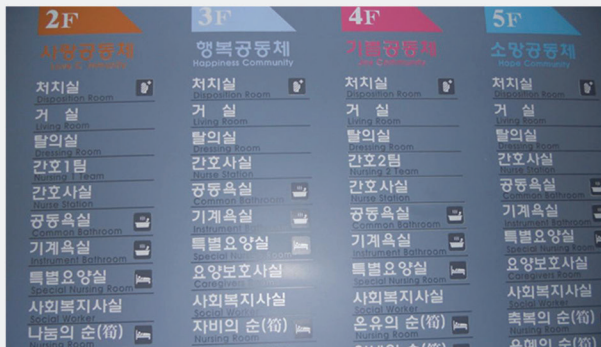
## 참고자료



권장 인접한 대지내 차로와 분리된 보행접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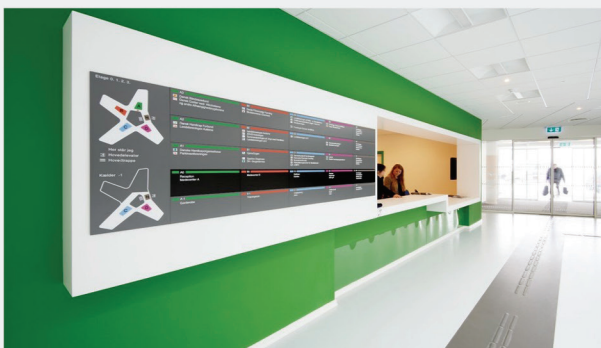
권장 차량동선과 완전히 분리된 보행접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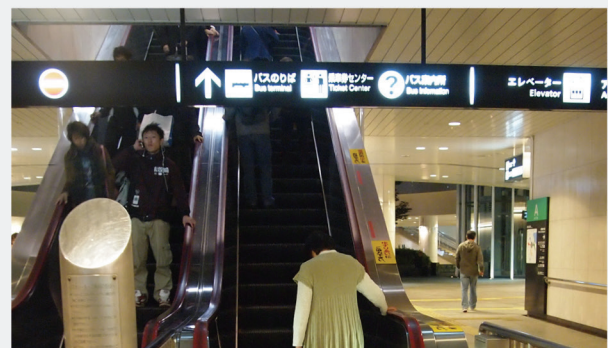
지양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건축물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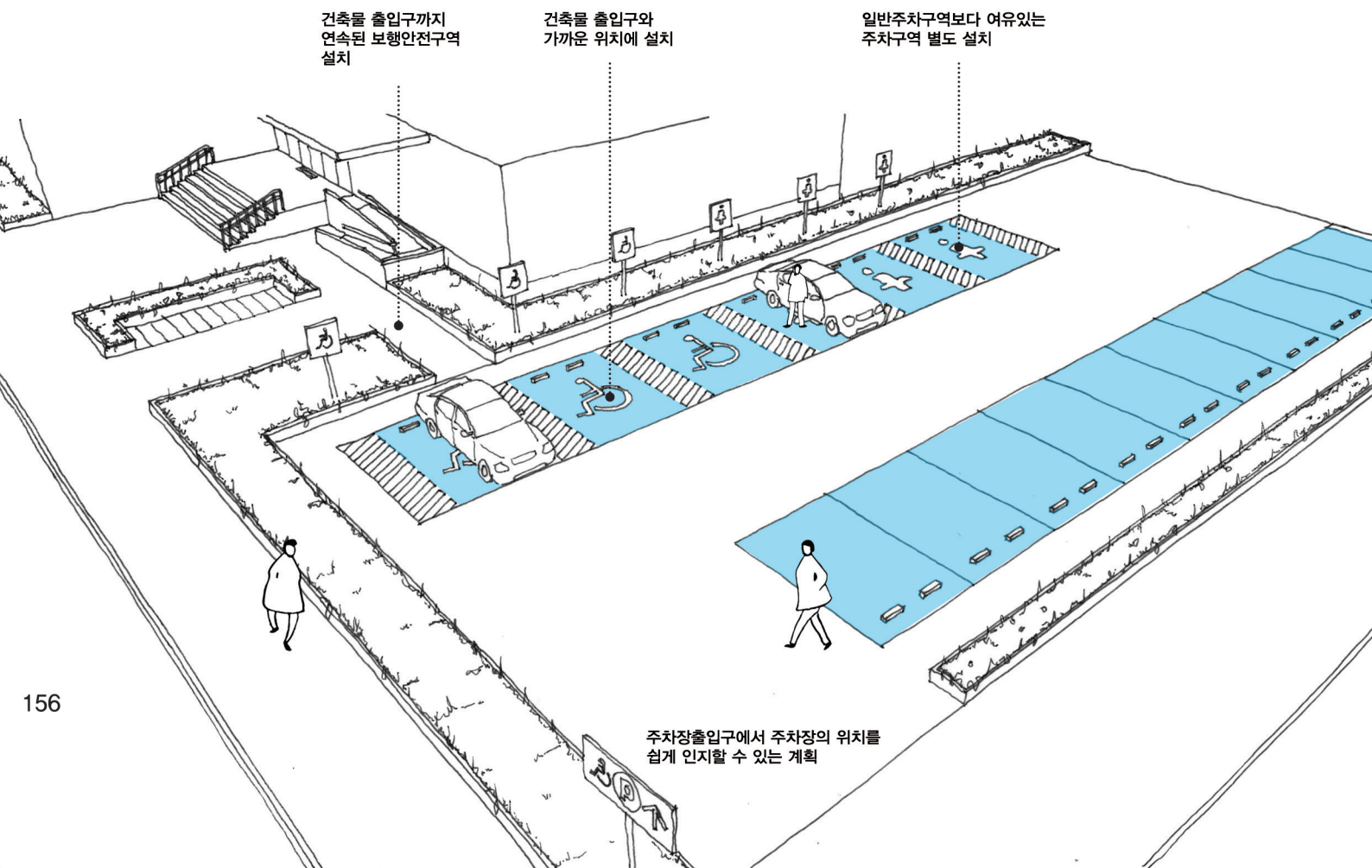
권장 대지 주변 상황을 알려주는 인지하기 쉬운 안내판



권장 구조 및 각 공실의 위치를 알려주는 눈높이 안내사인



권장 에스컬레이터 진입부분에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표시



## 2.3 주차장 > 기본지침

### 01

주차장출입구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주차구역은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접근성 확보

### 0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외에 임산부, 유아 동반자, 노인 등의 편리한 승하차를 위해 일반주차구역보다 여유 있는 폭을 가진 주차구역을 가급적 별도 설치

### 03

주차장에서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어지는 안전한 보행안전통로 확보

### 04

임산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주차구역의 상부에는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지붕이나 캐노피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

### 05

야간의 이용을 고려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 조명계획 수립

### 06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성전송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는 등 24시간 범죄에 대한 감시 및 재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



## 2.3 주차장 > 위치

### 주차장출입구

주차장출입구는 보행자의 대지 출입구 등 보행자동선과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면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교통량 등 주변의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며, 가급적 이면도로에서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주차장출입구 안내사인은 도로에서 쉽게 눈에 띄어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주차장출입구는 보행자 및 차량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진출 이전에 일시정지 하여 좌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시야를 차단하는 식재나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주차장 위치

외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가급적 건축물 전면부를 피하고, 보행접근로와 건축물 주출입구의 사이에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외부공간은 시민에게 개방되는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한다.

주차장출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는 명쾌한 동선으로 차도를 계획하며,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 및 안내표시를 적재적소에 설치한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은 건축물 출입구에 가깝게 설치하여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동거리가 짧아지도록 계획한다. 편의 건축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은 차로를 횡단하지 않고 건축물 출입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건축

설치된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방문객용, 직원용, 하역용 등의 주차장은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방문객용 주차장은 건축물 주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한다.

## 참고자료



### 권장

차도와 분리된 보행접근로



### 권장

인지하기 쉬운  
주차장출입구의 안내사인

## 2.3 주차장 > 주차구역

### 설치규격

일반주차구역은 최근 차량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보다 편리하게 승, 하차할 수 있도록 폭 2.5m, 길이 5.0m 이상으로 설치한다. **편의**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일시적인 부상자 등을 배려한 별도의 주차구역을 마련할 경우에는 차량 측면에 임산부나 유모차 등의 통행과 승하차를 위해 폭 0.8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주차 구역의 크기는 폭 3.0m, 길이 5.0m 이상으로 설치한다. **편의**

### 바닥

주차구역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물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한다.

보행안전통로로 연결되는 경계부분은 단차가 전혀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울기 1/12 이하로 턱 낮추기를 한다. **건축**

## 2.3 주차장 > 유도 및 안내

### 유도 및 안내

장애물의 간섭 없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며 보행안전통로의 좌우에는 시각장애인의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폭 0.3m 이상의 유도존을 설치한다. **건축**

유도존은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근에 턱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 및 색상 등에 차이를 두어 표현하며 보행장애물(가로등, 전주, 가로수 등)은 장애물존에 설치하여 보행안전통로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건축**

필요에 따라 후방확인을 위한 거울, 음성·음향 및 시각정보에 의해 자동차의 출고를 알려주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다. **BF**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설치규격

법적기준 : 폭 2.3m, 길이 5.0m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바닥

법적기준 : 바닥면 기울기 1/50 이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 권장

여유있는 주차장 폭 확보



## 권장

알기 쉬운 지하주차장의 사인  
및 색채계획



## 권장

알기 쉬운 지하주차장의 사인  
및 색채계획

## 2.3 주차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차면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는 2면 이상의 복수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법적 규정비 100%를 초과하여 확보한다. **BF**

### 설치규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5m, 길이 5.0m로 설치하고, 측면에 폭 1.2m 이상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노면표시한다. **편의** **건축**

### 유도 및 안내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도록 배치하며(별도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를 설치함과 동시에 바닥 색상의 차별화 등을 통한 식별성을 확보하고 연속적인 유도표시를 설치한다. **편의**

대지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유도표시를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편의**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의 별도 주차구역을 마련 할 경우에는 주차구역의 유도 및 안내표지판에 해당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하는 입식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설치한다. **편의** **BF**

### 보행안전통로

보행안전통로는 대지내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건축물 주출입구 승강설비가 있는 출입구까지 차량간섭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행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은 주차면의 활동공간과 보행안전통로와의 경계부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행안전통로에는 바닥면의 높이 차가 발생하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한다. **편의**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은 모든 구간에 걸쳐 폭 1.8m 이상으로 하며,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BF**

보행안전통로의 유효높이, 바닥마감의 설치기준은 “공공건축물-접근공간-보행 접근로”의 설치기준에 준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  
및 유도·안내표시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축물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02.장애인전용주차구역,  
pp.16~20. 참조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표시 세부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4.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항목  
참조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주차면수	최우수 BF인증기준 : 규정비율의 100% 초과 확보
설치규격	최우수 BF인증기준 : 폭 3.5m, 길이 5.0m 법적 크기 : 폭 3.3m, 길이 5.0m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도 및 안내	최우수 BF인증기준 :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 확인 가능,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설치,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연속적인 유도 표시 설치
설치규격	최우수 BF인증기준 : 보행안전통로는 차량 간섭이 전혀 없고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 주차면의 활동공간과 단차 없이 연결
바닥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8m 이상

## 참고자료



**권장** 법적 기준에 맞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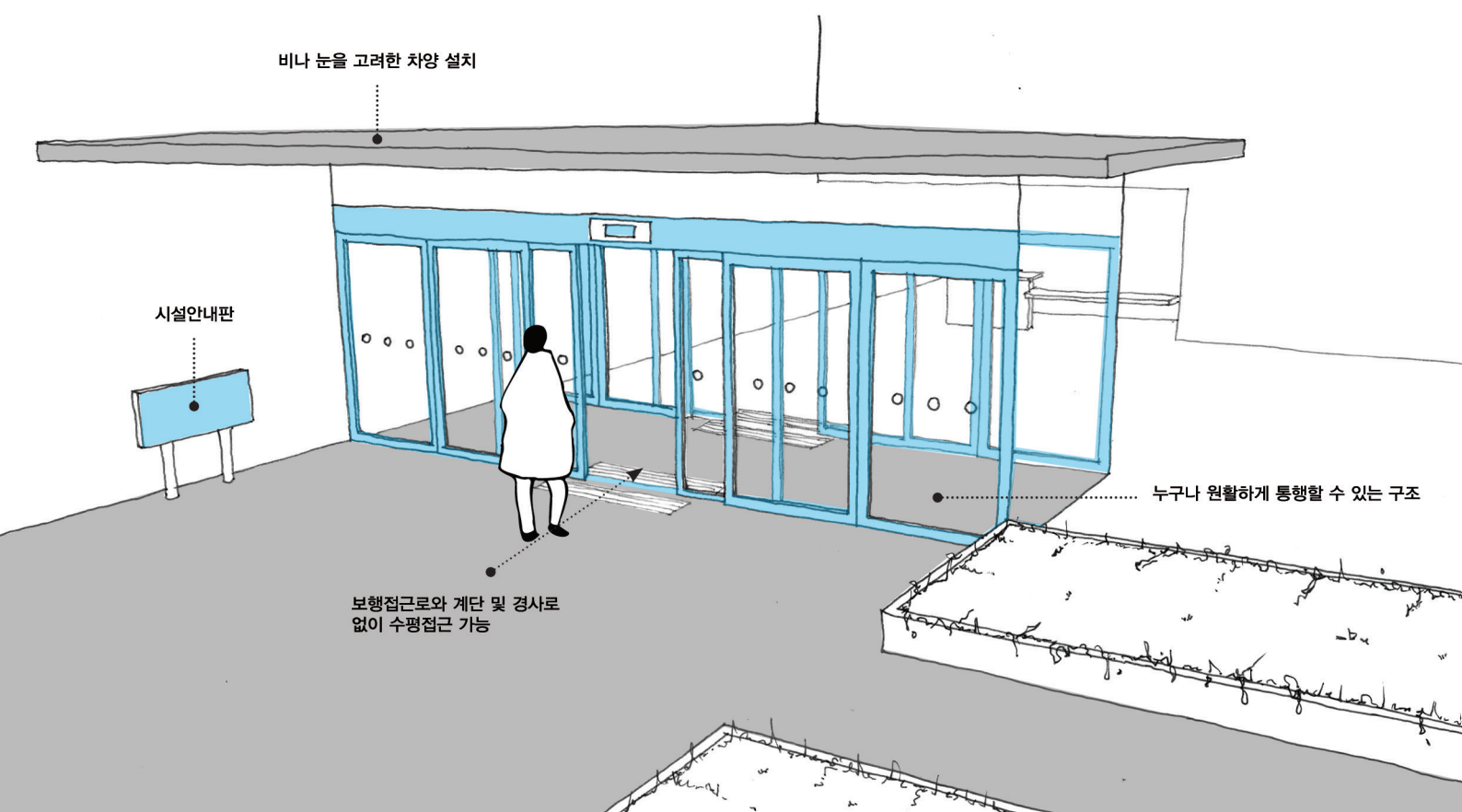
**권장** 주차구역 상부에 눈, 비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설치



**참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기법



**참고** 평탄한 보행접근로와 연결되고 알기 쉬운 안내를 제공하는 주차구역



## 03

## 진입공간

## 3.1 주출입구 &gt; 기본지침

## 01

보행접근로와 주출입구 사이에는 계단이나 경사로 없이 수평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 02

주출입구의 옥외 전면공간에는 비나 눈에 보호되는 지붕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혼잡하지 않도록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

## 03

주출입구의 출입문과 그 전 · 후면은 어린이, 유모차, 장애인,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누구나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

## 04

주출입구에서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목적 공간까지의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설안내판 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

## 05

주출입구는 대지 출입구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주차구역에서 쉽게 인지하고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계획

## 06

부출입구도 가급적 주출입구의 동일한 설치기준으로 계획하여 이용자의 편의 제공

### 3.1 주출입구 > 위치 및 전면공간

#### 위치

주출입구의 위치는 시설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도 대지 출입구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주차구역에서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주출입구에서 실내로 들어서면 안내데스크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등의 접근이 쉬운 공간구조로 계획한다.

야간에도 주출입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고, 충분한 밝기의 조도를 확보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 조명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 전면공간

자세한 사항은  
전면공간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21~25 참조

보행접근로에서 건축물 내부까지 수평접근할 수 있도록 작은 단차는 물론 계단이나 경사로가 없는 주출입구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Bf**

지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보행접근로와 주출입구 사이에 높이차가 발생할 경우, 경사로를 이용하는 장애인, 임산부, 유모차 동반자, 노인 등이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계단에 인접하여 경사로를 설치한다.

옥외 전면공간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혼잡하지 않도록 시설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옥외 전면공간의 상부에는 비, 눈, 햇볕에 보호되는 지붕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하며,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Bf**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전면공간**

최우수 BF인증기준 : 단차 없이 수평접근

법적 기준 : 단차 높이 2cm 이하, 경사로 기울기는 1/12 이하, 유효폭은 1.2m 이상, 손잡이는 길이 1.8m 이상이거나 높이 0.15m 이상인 경우 설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지양**

계단과 경사가 있는  
주출입구

**권장**

단차가 없고 누구나 인지 및  
접근하기 쉬운 주출입구

### 3.1 주출입구 > 주출입문

#### 형태

주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회전문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유모차나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사람 등 누구나 접근 및 이동이 편리한 자동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건축

주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시 및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별도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여닫이문이나 미닫이문을 병설하고,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

수동문이나 반자동문의 문손잡이는 휠체어 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0.8~0.9m의 높이에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부착한다. 건축

자동문이 아닌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문 개폐가 용이하도록 반자동문의 버튼이나 문손잡이 쪽 옆에 최소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건축

#### 유효폭, 전면 유효거리

자세한 사항은  
유효폭 및 전면유효거리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21~25 참조

주출입구(문)의 유효폭은 시설을 방문하는 다양한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므로 원활한 출입을 위해 1.2m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 편의

부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은 최소 0.8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 편의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휠체어나 유모차의 회전 및 출입문의 개폐 동작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닫이문의 경우 열리는 쪽은 1.5m 이상, 반대쪽은 1.2m 이상, 미닫이문은 좌우폭 1.9m 이상, 깊이 1.2m 이상을 확보한다. 건축 편의

방풍실과 같이 출입문이 연속된 주출입구는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주출입구 주변에 시각장애인용 시설종합안내판이나 우산거치대를 설치하는 경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형태

최우수 BF인증기준 : 자동문

법적 기준 : 회전문이 아닌 문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면공간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2m 이상, 전면 유효거리\* 1.8m 이상

\* 전면유효거리 : 문개폐에 소요되는 거리는 전면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않음

법적 기준 : 유효폭 0.8m 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 지양

여닫이문을 설치한 주출입문  
 여닫이문 설치로 출입이  
 불편한 주출입구  
 (출처:에이블뉴스)



## 권장

자동문을 설치한 주출입구

자세한 사항은  
유도 및 안내, 안전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21~25  
참조

### 3.1 주출입구 > 유도 및 안전

#### 유도 및 안내

보행접근로와 높이 차이가 있는 주출입구에 부득이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여 부출입구를 휠체어 사용자 등의 출입 경로로 할 경우, 부출입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를 마련한다. **BF**

주출입구에 시각장애인의 출입을 위해 점자안내판과 함께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문자안내를 병행하도록 한다. **BF**

문자안내와 안내판은 외국인 등의 방문을 고려하여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 안전

주출입문 0.3m 전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색상 및 재질을 달리 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편의 BF**

주출입구 외부 전면공간이 차로나 주차장과 인접한 경우에는 경계부분에 안전펜스 등을 적절히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주출입구 벽면을 유리로 계획할 경우 어린이는 유리창에 손을 댄 채 창밖을 보는 행태가 있으므로 문 경첩 부분에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손끼임 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미닫이문은 문짝과 문틀이 만나는 부분에 쿠션재 등을 설치하고 여닫이문은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확보되는 도어체크 등을 설치한다. **편의**

강화유리문일 경우 어린이나 시각장애인 등이 유리면에 부딪히지 않도록 바닥면에서 1.5m 높이에 폭 10cm 이상의 수평띠나 인지하기 쉬운 주위환기용 표식 등을 부착한다. **건축**

#### 인적서비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요청 설비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안전

최우수 BF인증기준 : 주출입구(문) 0.3m 전후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

## 참고자료



## 권장

연속성 있는 점형블록과  
음성으로 시각장애인 유도



## 권장

손 끼임 방지와 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위 환기용  
표시 부착한 유리문



## 권장

바닥마감재의 질감 차이 및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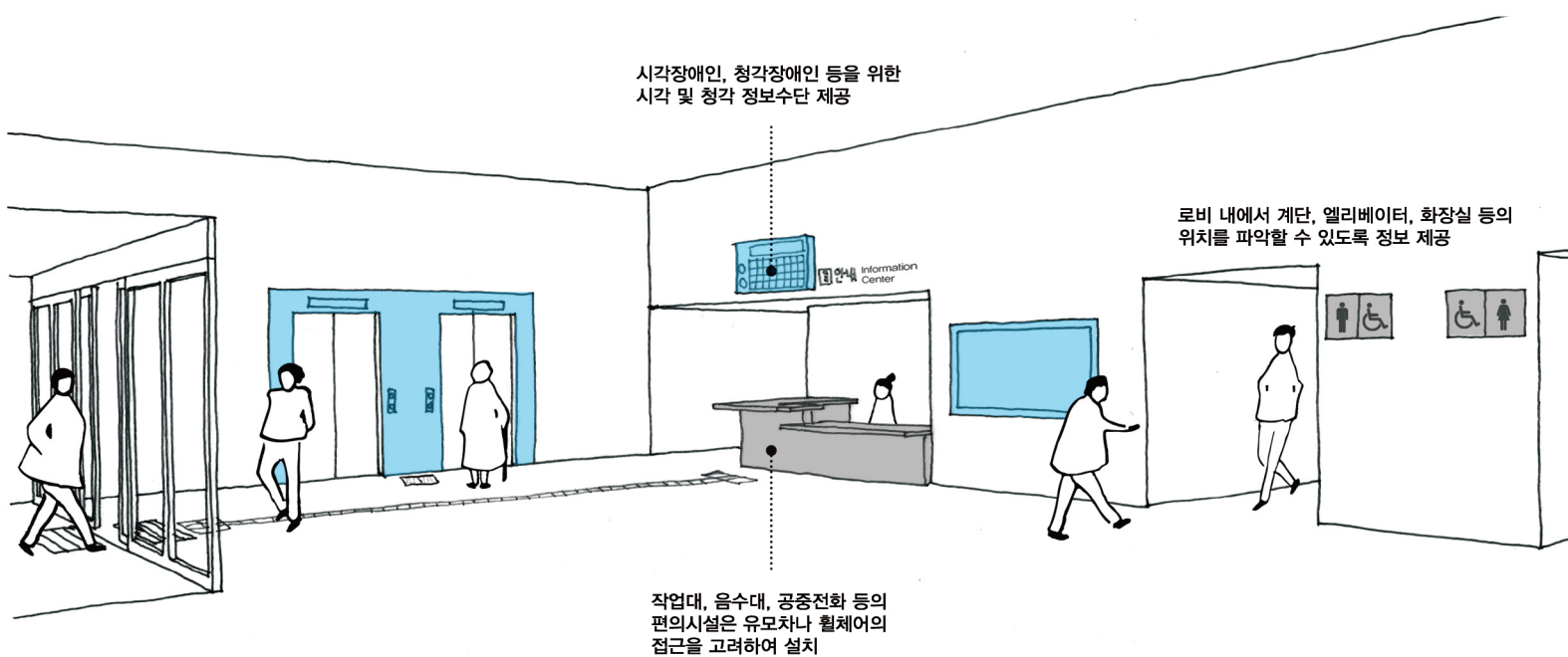
## 권장

출입 불가능한 범위에  
접근하지 않도록 보호용 난간  
설치



## 권장

주출입구에 인적 서비스 요청  
설비 설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시각 및 청각 정보수단 제공

로비 내에서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작업대, 음수대, 공중전화 등의  
편의시설은 유모차나 휠체어의  
접근을 고려하여 설치

## 3.2 로비 > 기본지침

### 01

로비에 들어서면 한눈에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안내데스크나 시설  
종합안내판 설치

### 02

처음 방문하는 사람일지라도 목적공간에 도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안내정보를 연속적으로 제공

### 03

로비는 개방감이 있고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계획

### 04

로비에 설치하는 작업대, 음수대, 공중전화 등의 편의시설은 유모차나 휠체어의  
접근은 물론 누구에게나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활동공간 확보

### 05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시각 및 청각 정보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병기,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

자세한 사항은  
안내데스크 및 접수대의  
형태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90~92 참조

## 3.2 로비 > 접수 · 안내데스크 및 유도 · 안내

### 위치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는 주출입문에서 잘 보이는 출입문 옆 혹은 전면에 설치하여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주출입문에서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까지의 접근 경로에는 단차 없이 수평접근 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안내표시를 제공한다.

안내데스크는 시력이나 청력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 시각정보와 청각정보를 동시에 제공해야 하며, 외국인을 위한 인적 또는 설비의 대응이 필요하다.

### 안전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는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사람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편의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전면에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편의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과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눈높이가 동일하게 되는 구조를 권장한다.

시설용도에 따라 어린이나 노인이 의자에 앉아 기록 작업 등을 할 수 있는 높이 0.8m 정도의 선반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지팡이, 우산을 걸 수 있는 홈이나 걸이대, 가방이나 짐 등을 잠시 둘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한다. BF

안내데스크 및 작업대는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몸을 지지하기 쉬운 형상으로 하거나 손잡이를 설치한다.

### 유도 및 안내

자세한 사항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유도 및 안내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93,  
pp.101~105 참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필기구를 비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설비, 난청인을 위해 진동호출기 등의 설비를 설치한다. BF

음성안내를 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거나 노인 등을 위하여 문자안내를 병행한다.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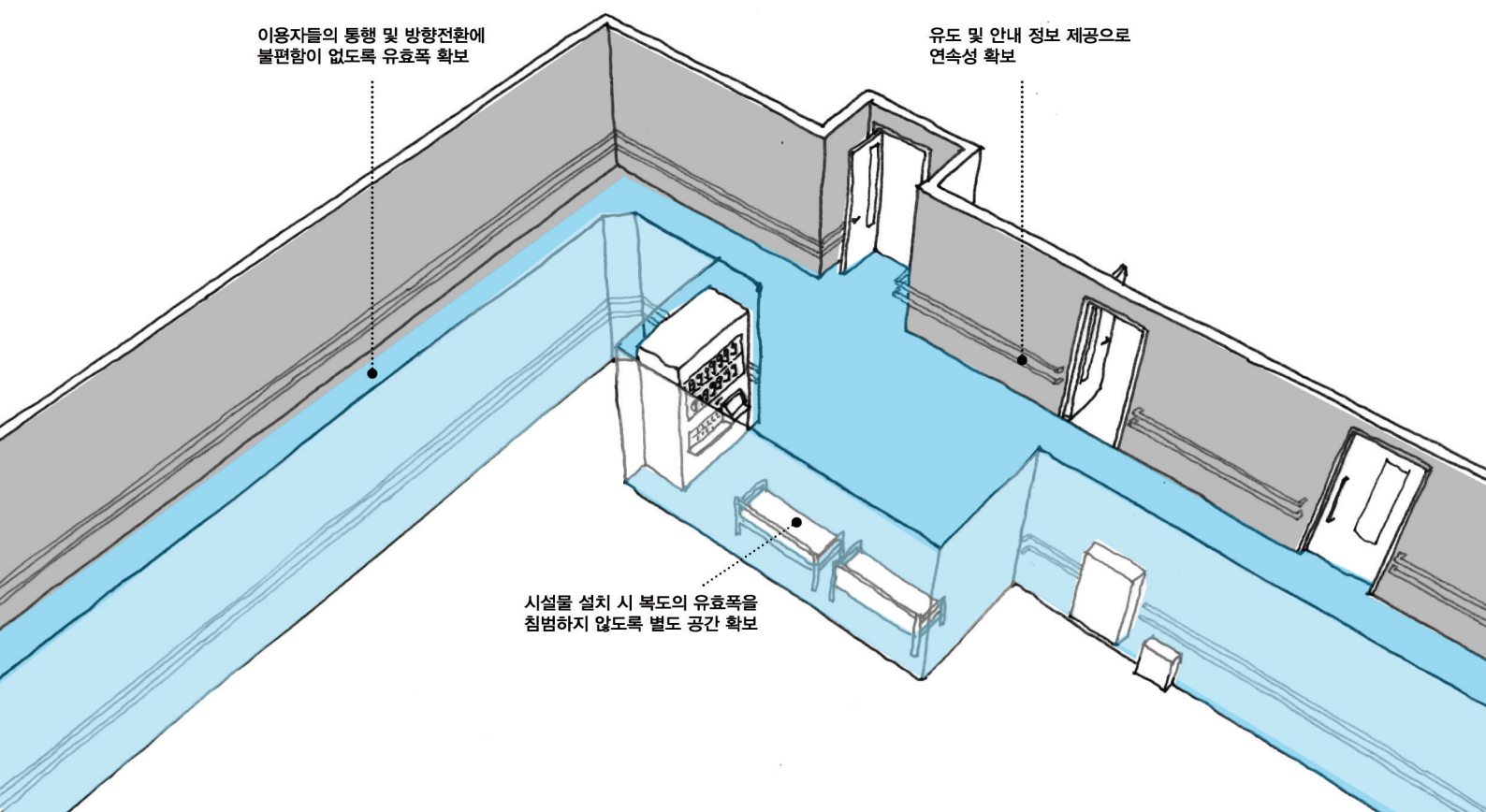
시각 복지관 등 시각장애인 전용시설에서는 음향유도장치와 음성유도장치를 동시에 설치한다. 건축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를 병기한 안내사인이나 문자 안내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인적 대응도 가능하도록 한다.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위치	최우수 BF인증기준 : 출입문 옆 혹은 전면에 설치
형태	최우수 BF인증기준 : 주출입구(문) 0.3m 전후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
시각장애인 유도 · 안내설비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안내판 :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에서 1.0~1.2m 이내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음성안내장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유도신호장치 : 음향 · 시각 · 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권장** 한눈에 알기 쉬운 공간 구조의 로비 : 덴마크**권장**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안내데스크 설치**권장** 다양한 높이의 작업대**권장** 다양한 시각 및 청각정보를 제공하는 로비



## 04

## 이동공간

## 4.1 복도 &gt; 기본지침

## 01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 조건이나 동작을 고려하여 계획

## 02

각 공간을 연결하는 연결통로이므로 이용자들의 통행 및 방향 전환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충분한 폭을 확보

## 03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각장애인이 방향을 인지하기 용이하도록 명쾌한 동선으로 계획

## 04

적재적소에 유도 및 안내 정보를 제공하며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

## 05

층별 또는 조닝별로 벽, 천장, 바닥 등의 마감재나 공간 연출을 달리하여 이용자가 시설 내 위치를 쉽게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획

## 06

이용자가 이동 중 복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단차가 없고 통행하기 쉬운 바닥마감재를 선정하며, 복도에 어두운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채광 및 인공조명계획 수립

## 07

복도에는 기둥이나 벽면돌출, 장식물이나 소화설비기구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도록 계획

## 4.1 복도 > 유효폭 및 보행장애물

### 유효폭

모든 복도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유효폭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BF**

통행량이 많은 복도는 휠체어가 상호교행할 수 있는 1.8m 이상 확보한다. **건축**

복도의 모퉁이는 이용자가 방향 전환하기 쉽도록 벽 모서리를 0.3m 이상 사선 방향 또는 둥글게 먼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

### 보행장애물

자세한 사항은  
보행장애물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32~38 참조

복도 벽면에는 부적절한 돌출물 및 충돌위험이 있는 설치물이 전혀 없도록 한다.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도록 소화기는 벽 매입식으로 하고, 의자, 자동 판매기 등이 복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동장애물이 전혀 없도록 한다. **건축**

복도 유효폭 이내에는 높이 2.1m 이내에 안내사인이나 장식 등의 보행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BF**

높이 2.1m 이내에 계단하부 등의 보행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이나 보호벽 등을 설치한다. **편의**

휠체어 사용자가 많은 시설은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0.35m의 높이에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건축**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유효폭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5m 이상

법적 기준 : 유효폭 1.2m 이상,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m 확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행장애물

최우수 BF인증기준 : 벽면에 돌출물 및 설치물과 바닥 이동장애물 설치 지양,  
킥플레이트 설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법적 기준 : 높이 2.1m 이내, 벽면에서 돌출폭은 0.1m 이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 지양

법적 유효폭은 확보하였으나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지  
않은 복도

## 권장

보행영역의 바닥마감재를  
달리하여 보행유도 및  
실내출입구 위치를 알려주는  
복도

자세한 사항은  
바닥 및 벽 마감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32~38 참조

## 4.1 복도 > 마감

### 바닥

임산부, 어린이, 노인, 보행장애인 등은 작은단차에도 걸려 넘어질 우려가 크므로, 바닥마감재의 이음새 틈이나 미세한 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한다.

바닥마감재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건축**

지팡이 사용자,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동반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모가 지나치게 긴 양탄자는 지양한다. **건축**

복도 폭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통행하기 쉬운 포장재와 시각 장애인 등이 걷기 쉬운 포장재 등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각 실의 출입문 주변이나 휴게 등 특정공간은 바닥마감재의 패턴을 달리하여 변화감 있는 복도공간으로 연출한다.

단차로 오인하기 쉬운 문양이나 패턴의 바닥 마감은 지양한다.

### 벽

벽 마감재는 손으로 만져도 촉감이 좋고 쉽게 더럽혀지지 않는 재료로 한다.

벽면에 요철 등의 리듬이 규칙적으로 차이가 있으면 시각장애인이 방향을 인지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건축**

벽이나 바닥마감재의 재질이나 색상 등을 층별이나 영역별로 달리하여 건축물 내 사용자의 현 위치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건축**

출입구의 위치와 공간구성을 알기 쉽게 색채, 마감, 안내표지를 계획한다.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바닥

최우수 BF인증기준 : 단차가 전혀 없음. 미끄럽지 않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  
 최우수 BF인증기준 : 색상 및 재질 변화로 유도하고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법적 유효폭 기준 : 높이 차이가 없음. 미끄럽지 않는 재질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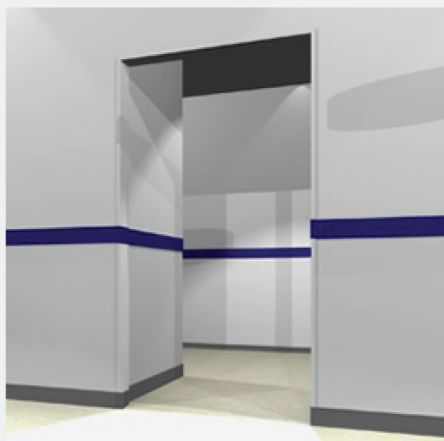
## 권장

영역별 바닥마감재 패턴을  
 달리한 변화감 있는 복도



## 권장

요철 등으로 이동 방향을  
 유도하는 벽면 마감



## 권장

색, 패턴, 재료 등을 활용하여  
 공간의 깊이 및 출입구  
 위치를 인지하기 쉽도록 벽면  
 마감



## 권장

바닥, 벽, 조명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각  
 출입구 위치를 인지하기  
 쉽도록 마감

자세한 사항은  
손잡이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71~74 참조

## 4.1 복도 > 손잡이

### 설치방법

어린이, 노인, 임산부,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신체조건 및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가급적 2단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손잡이는 진행방향, 몸의 균형유지, 보행보조, 추락방지 등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위치, 형태, 설치방법을 결정한다. 건축

손잡이는 반드시 연속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방화문 등으로 인해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비기구나 설비 점검문 등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설치 방법에 유의한다. 편의

몸의 균형유지 및 추락방지를 위해 체중이 실려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편의

시각장애인에게 손잡이는 현재의 위치, 진행방향,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필요한 위치마다 손잡이 상부면에 점자로 정보를 표시한다. 건축

### 형태

손잡이의 단면 형상은 움켜잡기 쉬운 크기의 원형 단면으로 한다. 편의

손잡이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은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도록 아래방향 또는 벽 방향으로 굽히거나 2단손잡이는 상하 손잡이를 연결하여 설치한다. 편의

손잡이의 재질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도 사용하기에 좋도록 차갑거나 미끄러운 금속제를 지양하고 촉감이 좋은 재질로 설치한다. 건축

2단 손잡이를 설치할 경우, 하단손잡이의 벽과의 이격거리는 손잡이 직경의 1/2를 더하여 상단손잡이보다 복도측으로 내밀게 설치하는 것이 하단 손잡이를 움켜잡기에 용이하다. 편의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설치방법

최우수 BF인증기준 : 연속 손잡이 설치, 점자표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사용

법적 기준 : 상단손잡이 높이 0.8~0.9m, 하단손잡이 높이 0.65m 내외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형태

법적 기준 : 손잡이 직경 3.2cm~3.8cm, 벽과 손잡이와의 간격 5cm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 지양

차가운 느낌을 주는 금속제의 손잡이



## 권장

따뜻함을 주고 시설 이용자 특성에 맞는 손잡이, 손잡이 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소화기 매입 설치



## 권장

따뜻함을 주고 시설 이용자 특성에 맞게 양방향 손잡이 설치

## 4.1 복도 > 유도 및 안내

### 동선

최단거리로 각 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복도를 짧게 하며, 시각장애인이 방향을 인지하기에 용이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건축**

복잡하게 연결하거나 원형 또는 방향 전환이 반복되는 구조일 경우,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의 이용이 어려워지므로, 방향 전환이 적은 복도로 계획하여 사용자의 이용을 배려한다. **건축**

### 유도 및 안내

시설을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도 목적지까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높이에 유도 및 안내표시판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며,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 병기나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점자블록, 바닥패턴, 손잡이, 벽면의 요철, 음성 또는 음향신호, 소리, 냄새, 빛 등 복수 정보의 제공을 통해 목적지까지 유도하도록 한다.

약시나 어느 정도 빛을 느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가급적 중복도가 아닌 편복도로 하여 자연 채광을 확보하거나 한쪽 벽면의 색을 바꾸어 방향성을 인식하기 쉽도록 설치한다.

계단 시작과 끝지점 · 장애인용승강기 조작기 · 화장실표시판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 하여 설치한다. **편의**

### 조명

통행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눈부심이 없도록 하며, 발밑조명, 비상용 조명 장치를 적절히 배치한다.

## 참고자료



### 권장

방향성이 있는 바닥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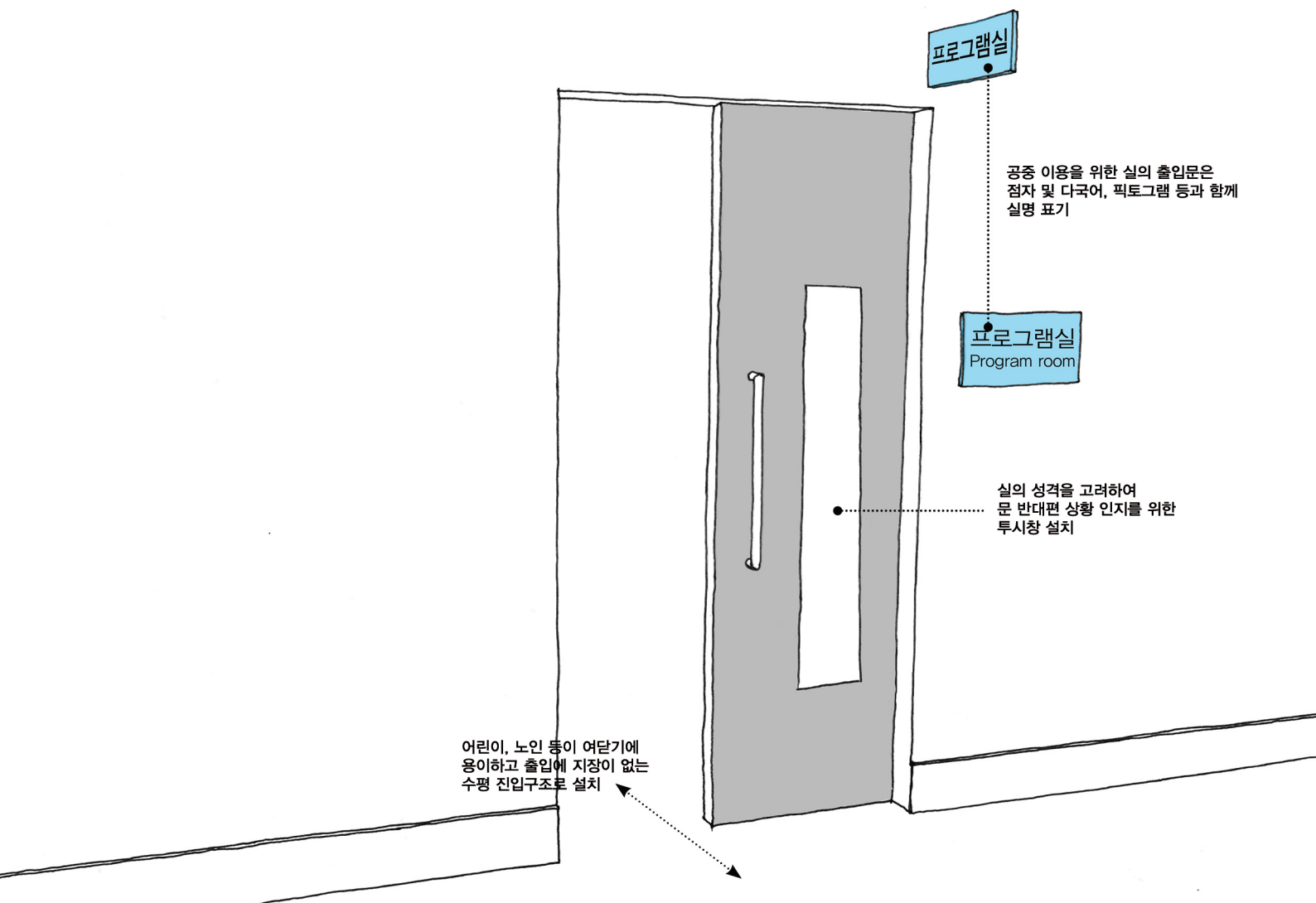
### 권장

목적공간까지 유도하는 알기 쉬운 안내사인



### 권장

조명 및 벽체 색상을 활용한 유도 및 안내



## 4.2 실내출입문 > 기본지침

### 01

각 실의 출입문은 어린이, 노인 등이 문손잡이를 잡고 여닫기에 용이해야 하며, 출입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폭, 구조, 단차 등에 대한 배려 필요

### 02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동반자, 임산부, 노인 등이 문의 출입하는 행태를 고려하여 전·후면 유효거리 및 활동공간 등이 확보된 출입문 설치

### 03

열린 출입문이 통로를 차단하는 등 다른 이용자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 반대편에 있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투시창 설치

### 04

공중 이용을 위한 실의 출입문은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에 부착하며, 점자 및 다국어 표기, 픽토그램 등을 통한 적절한 정보 제공

자세한 사항은  
문의 형태 및 문손잡이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인  
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26~31 참조

## 4.2 실내출입문 > 형태

### 문의 형태

실내출입문은 회전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며, 민원실 등 통행량이 많은 주요 실의 출입문은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F**

자동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 시간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 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 범위를 넓게 해야 한다. **편의**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고,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의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편의**

문 반대편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투시창을 설치한다. **건축**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은 유리면 충돌 방지를 위해 주의환기용 표식 등을 보기 쉬운 높이에 붙인다. **건축**

실을 출입하는 사람과 복도를 통행하는 사람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실내 출입 문의 설치 위치는 복도가 꺾이는 모퉁이 부분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으로 한다.

### 문손잡이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어린이 등을 위해 적은 힘으로도 문을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문손잡이를 설치한다.

문손잡이 형태는 돌려서 사용하는 노브형은 지양하고,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이나 레버형으로 설치한다. **편의**

## 4.2 실내출입문 > 문의 구조

### 단차

실내출입문 바닥면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출입과 노인, 임산부 등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문턱이나 홈과 같은 단차를 두어서는 안 된다. **편의**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문의 형태

최우수 BF인증기준 : 미닫이문, 여닫이문, 자동문

법적 기준 : 회전문 금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손잡이

법적기준 : 문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사이에 위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 지양

주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거운 출입문



### 권장

내부 상황을 알 수 있게 투시창이 설치된 출입문, 문 아래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의한 손상방지 처리



### 권장

투시창과 손 끼임 방지 처리된 출입문

자세한 사항은  
유효폭 및 전·후면 유효거리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26~31 참조

## 유효폭

출입문의 폭보다 통과 유효폭이 좁다는 점에 유의하여 유효폭을 확보한다. **건축**

임산부, 노인, 영유아 동반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출입문은 유효폭 1.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BF**

1.1m 이상의 여닫이문은 여닫기가 힘들고 문과 휠체어의 회전범위가 켜져 오히려 불편하므로 지나치게 큰 폭의 여닫이문은 설치를 지양한다. **건축**

## 전·후면 유효거리

휠체어 사용자 등의 용이한 문 개폐를 위해 모든 실내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는 1.8m 이상을 확보하며, 문의 개폐에 소용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유의한다. **편의 BF**

자동문이 아닌 여닫이문, 미닫이문, 반자동문의 경우,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문 손잡이와 터치버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측면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BF**

## 4.2 실내출입문 > 유도 및 안내

### 유도 및 안내

자세한 사항은  
유도 및 안내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26~31 참조

실내출입문의 열리는 방향의 복도 손잡이에 실명을 점자표기하고, 하부 바닥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편의**

실내출입문의 복도측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마감재를 달리 할 수 있다. **편의**

문손잡이 측의 벽면에는 바닥에서 1.5m의 높이에 실명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및 다국어 병기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편의**

돌출형 실명표지판을 벽면에 설치할 경우에는 복도의 보행장애물 범위인 높이 2.1m 이내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복도 벽면 마감재와 실내출입문의 색상 등을 달리하여 출입문을 인지하기 쉽도록 한다.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단차

최우수 BF인증기준 : 단차 전혀 없음

법적 기준 : 단차 2cm 이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효폭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0m 이상

법적 기준 : 유효폭 0.8m 이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 · 후면  
유효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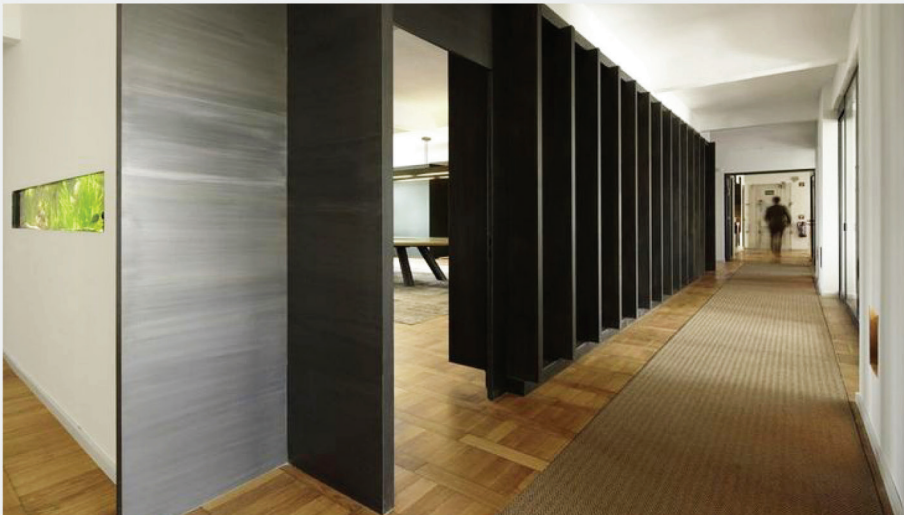
최우수 BF인증기준 : 주출입문의 전면유효거리\* 1.8m 이상

법적 기준 : 전 · 후면 유효거리 1.2m 이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전면유효거리 : 문개폐에 소요되는 거리는 전면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않음

## 참고자료



## 권장

문턱이 없고 복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실내출입문



## 참고

측면 활동 공간 미확보로  
자동 개폐버튼 설치

## 권장

여유있는 유효폭과  
활동공간을 확보한 출입문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유도 및 안내      법적기준 :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

**권장**  
출입문과 벽의 색채대비로  
인지성 향상



**권장**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기  
쉬운 실내출입문의 사인



### 4.3 경사로 > 기본지침

#### 01

수평이동경로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건축물 구조상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수평이동동선 내에 높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경사로 설치

#### 02

경사로는 휠체어 사용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通行하기 적합한 위치, 기울기, 폭, 바닥마감, 휴식참, 손잡이 등에 대한 면밀한 배려가 필요

#### 03

경사로의 이용이 불편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를 위하여 경사도에 인접하여 계단을 병행 설치

#### 04

건축물 주출입구 등 건축물 외부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상부에 햇볕,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05

실내에 설치하는 경사로는 대피로로 사용하기에 배연시설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별도의 피난대책 수립

## 4.3 경사로 > 형태 및 구조

### 형태

경사로는 모든 이용자의 안전한 수직이동을 위하여, 방향 전환 없는 직선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가 상황에 맞게 이동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경사로에 인접하여 계단을 병행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효폭 및 기울기

경사로의 최소 유효폭은 복도와 동일하게 폭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BF

경사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는 없어야 한다. BF

기울기 1/18의 범위를 초과하는 층간 이동경사로는 오히려 이동거리를 길게하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너무 완만한 경사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건축 BF

### 활동공간 및 휴식참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휴식참을 설치해야 하며,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 휴식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편의

자세한 사항은  
활동공간 및 휴식참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39~42  
참조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형태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5m 이상,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법적 기준 : 유효폭 1.2m 이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효폭 및  
기울기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5m 이상, 기울기 1/18이하

법적 기준 :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1/12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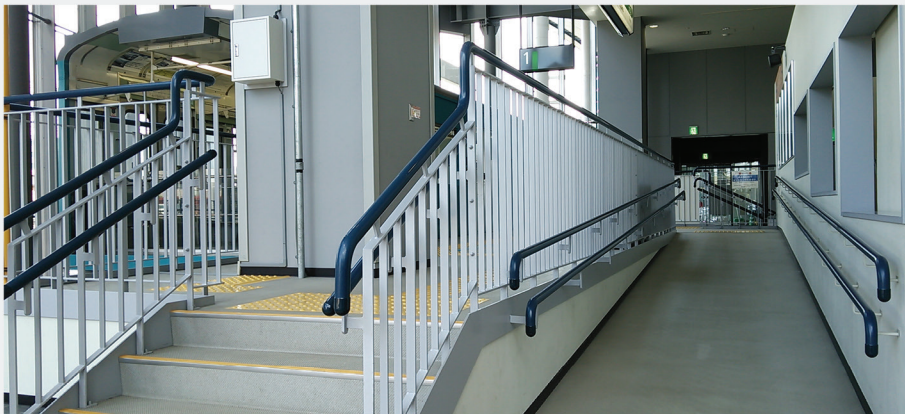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 지양

경사로만 설치한 통로



## 권장

경사로에 인접하여 계단을  
병행 설치

## 권장

경사로에 인접하여 계단을  
병행 설치

## 4.3 경사로 > 안전 및 안내

### 마감

자세한 사항은  
마감 및 안내표시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39~42 참조

기울기가 있는 경사로의 바닥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마감재를 사용한다. **BF**

옥외에 설치되는 경사로는 비에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용 타일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편의**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 굴절지점, 휴식점은 약시자가, 노인, 어린이 등이 수평 부분과 경사부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마감재의 색상, 명도, 질감 등을 달리한다.

경사로 양측면에는 휠체어나 유모차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한다. **편의 BF**

휠체어나 유모차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하여 벽면에 충격 완화용 매트를 부착할 수 있으며, 매트는 주변과의 조화를 이룬 재질이나 색상으로 마감한다. **편의**

### 손잡이

기타 손잡이 설치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61~74 참조

주변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상 및 명도 차이가 명확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차갑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2단 연속손잡이를 설치한다. **BF**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BF**

### 안내표시

경사로의 위치를 유도, 안내하는 표시를 연속하여 설치한다. **건축**

휠체어 사용자는 경사로로, 시각장애인은 계단으로 분리하여 유도하고 유효폭이 1.5m 이하인 경사로는 시각장애인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건축**

경사로 이외의 접근로가 없어 시각장애인의 유도가 불가피한 경우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 휴식점 등에는 경고용 바닥포장재를 0.3m 이상 설치하되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 **건축**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손잡이

법적기준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 0.15m 이상인 경우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 지양

심미성과 안전성이 미비한 경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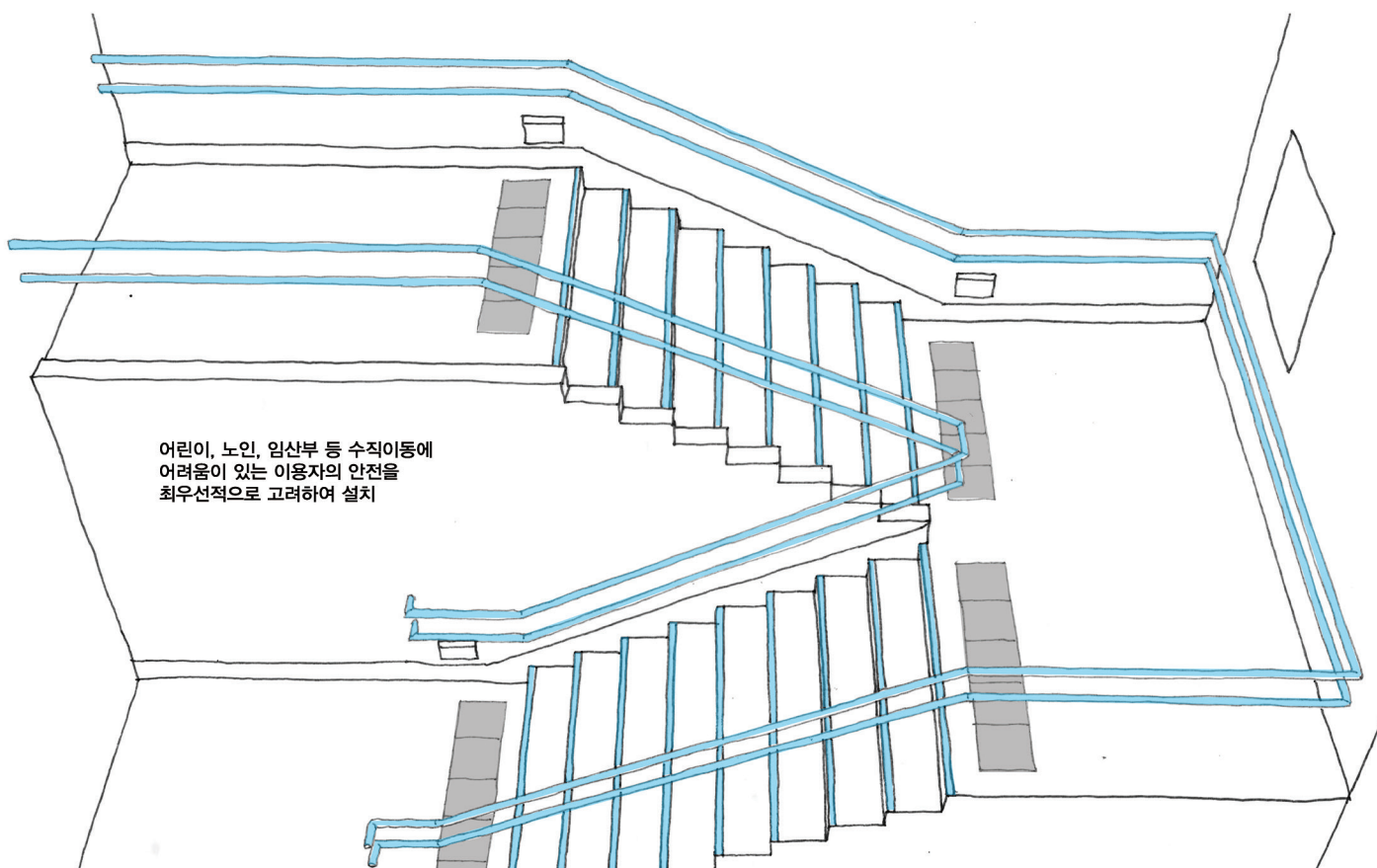
## 권장

미끄럽지 않는 바닥면과 연속손잡이로 안전한 경사로



## 권장

2단 손잡이와 조명, 미끄럼 방지 처리한 바닥면의 경사로



## 4.4 계단 > 기본지침

### 01

계단은 휠체어 사용자를 제외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수직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설치

### 02

평상시는 물론 비상시에도 안전한 피난 동선으로 활용되도록 설치

### 03

불규칙한 첩면의 높이 차이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주원인이 되므로, 하나의 계단에서 디딤판 · 첩면의 치수가 도중에 바뀌지 않게 동일하도록 설치

### 04

계단을 내려오는 도중에 넘어지기 쉬우므로 디딤판이나 계단코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

### 05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계단 손잡이는 어린이, 노인 등 신체조건이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하여 2단 손잡이를 설치

자세한 사항은  
형태 및 휴식참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43~49 참조

## 4.4 계단 > 형태

### 형태

계단은 평상시 층간이동에 유용한 공간이면서 화재 등 비상시 피난이동경로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므로,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시각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 **건축**

일정한 진행방향과 규칙적인 방향 전환이 가능한 직선 또는 꺾임형으로 하며, 시각장애인 등이 실족하기 쉬운 돌음 또는 나선형 계단은 지양한다. **건축**

### 휴식참

노인, 임산부 등이 높은 계단을 오르내릴 경우 잠시 휴식할 수 있고, 실족 시에 계속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계단 중간에 휴식참을 설치하도록 한다. **건축**

계단의 휴식참은 높이 1.8m 이내마다 설치하며, 수평면으로 된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BF**

계단참을 기준으로 상하 계단수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이용자의 안전에 최우선적인 배려이며, 일정한 진행 방향과 규칙적인 방향 전환이 가능한 구조는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 모두에게 화재 시 최우선의 안전장치이다. **건축**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형태

최우수 BF인증기준 : 직선 또는 꺾임 형태의 계단, 1.8m 마다 휴식참 설치

휴식참

법적기준 : 높이 3.0m 이내 마다 계단참 설치 (건축법 시행령)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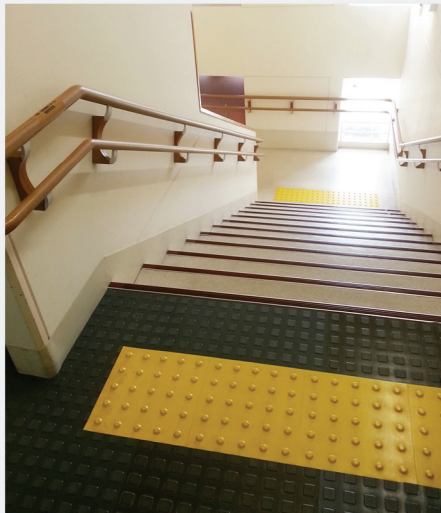
## 지양

계단폭이 고르지 않아서  
실족의 위험이 높음



## 권장

계단실 진입 시 곧바로 하향  
계단을 만날 경우, 비상대피  
또는 색약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상향 계단 설치



## 권장

규칙적인 방향 전환이 가능한  
꺾임형 계단

## 4.4 계단 > 구조

### 유효폭, 유효높이

계단의 유효폭은 2명이 여유 있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1.5m 이상으로 확보한다. BF

계단을 오르내릴 때 머리가 계단 하부에 부딪히지 않도록 2.1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한다. 편의

### 디딤판 · 철탈면

계단 안전치수(철탈면+디딤판=46cm)는 철탈면과 디딤판의 비례로 결정된다. 건축

한 개의 계단에서 디딤판 너비와 철탈면 높이가 도중에 바뀌게 되면 넘어지는 주 원인이 되므로, 균일한 치수로 하여야 한다. 편의

디딤판 너비는 28cm 이상, 철탈면 높이는 18cm 이하로 하되, 가급적 어린이, 노인 등의 이용자를 고려하여 디딤판 너비는 30cm 이상, 철탈면 높이는 16cm 이하로 한다. 편의 건축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발과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철탈면을 설치한다. 편의

### 계단코

계단코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건축

디딤판의 끝부분은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않도록 철탈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cm 이상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편의

자세한 사항은  
디딤판 · 철탈면, 계단코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43~49 참조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유효폭,  
유효높이

최우수 BF인증기준 :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 이상

법적기준 :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 이상, 옥외계단 0.9m 이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디딤판 ·  
첼면 · 계단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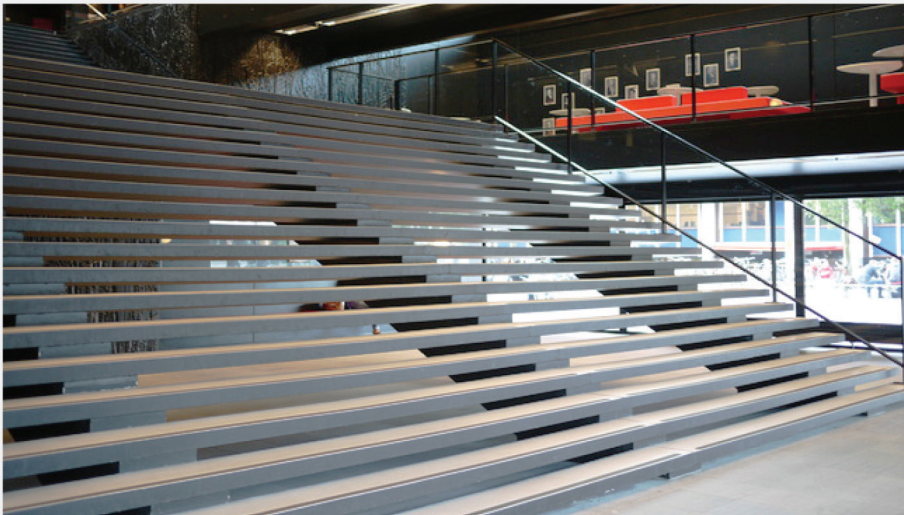
반드시 첼면 설치

디딤판 너비 0.28m 이상, 첼면 높이 0.18m 이하

동일한 계단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첼면의 높이는 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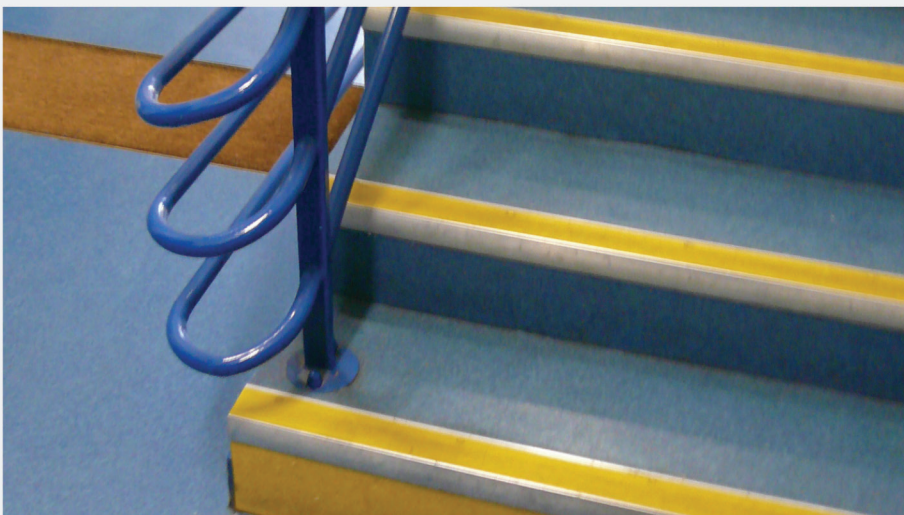
첼면의 기울기 60° 이상, 계단코 3cm 이상 돌출되어서는 안됨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 지양

디자인이 강조된 첼면이 없는 계단



## 권장

디딤판과 첼면의 치수가 균일하고 인지하기 쉬운 계단

## 4.4 계단 > 안전 및 식별

### 바닥마감

자세한 사항은  
바닥마감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43~49 참조

바닥 표면은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으며, 단단히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편의]**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편의]**

디딤판, 철틀면, 계단코는 약시 등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닥포장재의 색상·명도·채도, 질감 등을 달리하도록 한다. **[건축]**

계단을 내려올 때 넘어지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디딤판 및 계단코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재료 및 색상을 달리하여야 하며, 특히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 지점은 식별성을 최대한으로 배려하도록 한다.

### 조명

에너지 절감과 쾌적함을 위해 외벽에 면한 계단은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측창이나 천창을 설치하는 등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

야간에도 발을 헛딛지 않도록 천장 조명, 발밑 조명, 비상용 조명 등을 적재 적소에 설치하여 디딤판과 철틀면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계단 조명의 조도는 150lx 이상을 확보하여 약시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건축]**

### 난간 및 손잡이

자세한 사항은  
기타 손잡이 설치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61~74 참조

계단의 측면에는 반드시 연속하여 2단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양쪽 측면에 모두 설치한다. **[BF]**

계단의 측면에 벽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추락하지 않도록 손잡이 지지대의 사이 간격에 유의하여야 한다. **[건축]**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바닥마감

법적기준 :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 하여야 함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난간,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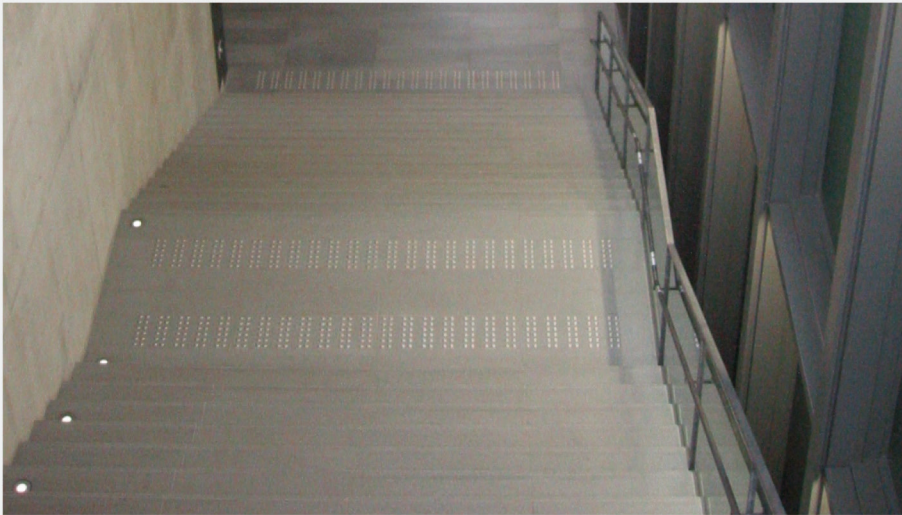
난간 법적기준 : 계단 측면에 난간을 설치할 경우 난간하부에 바닥면에서 높이 2cm 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손잡이 법적기준 : 계단 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손잡이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 손잡이 설치,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 ·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부착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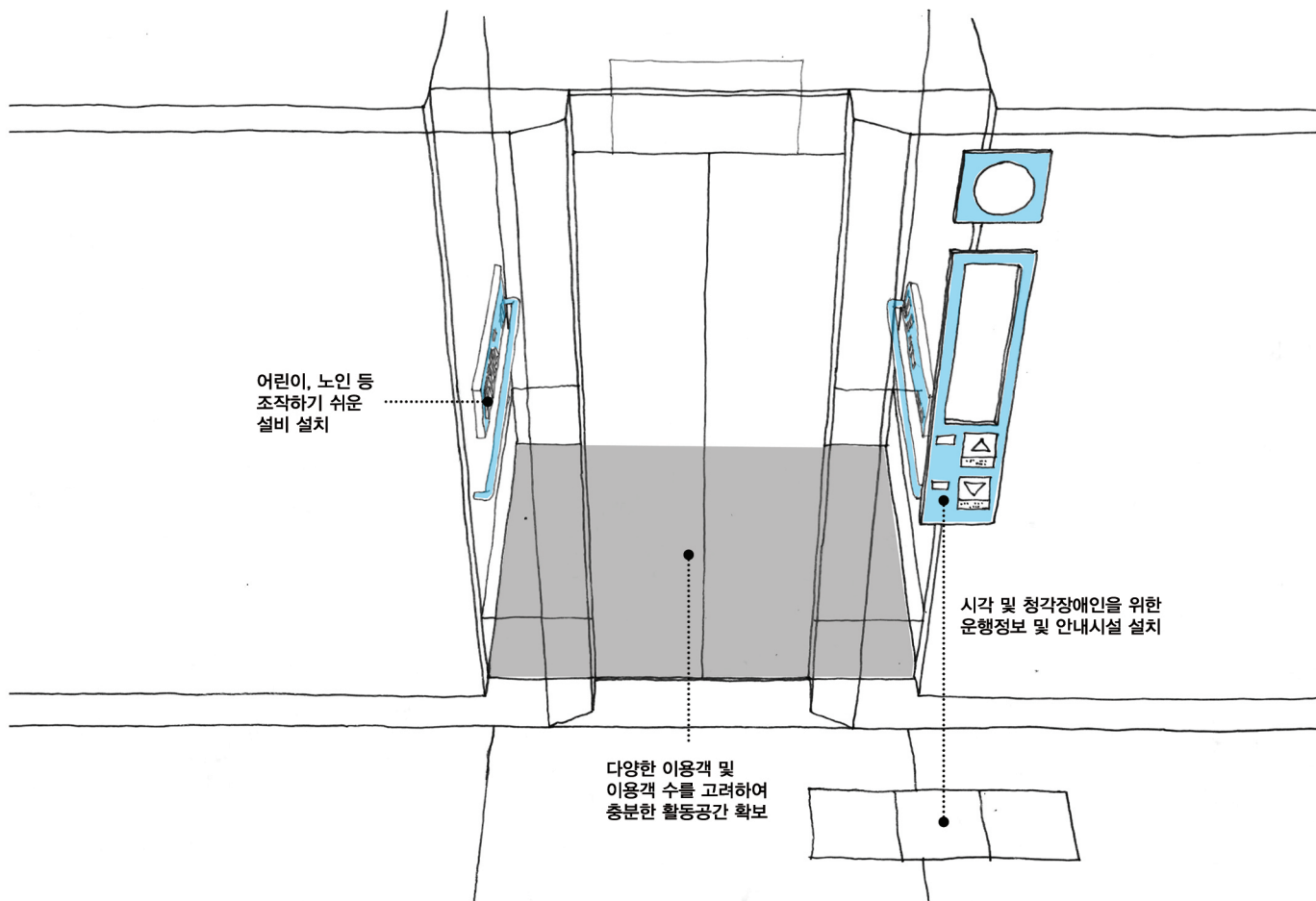
## 지양

디딤판의 식별이 어려운 계단



## 권장

조명설치 된 계단 및 계단 형태가 명확하고 유도기능 부가된 계단



## 4.5 엘리베이터 > 기본지침

### 01

엘리베이터는 상하층의 이동시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이동 수단이며, 특히 계단을 이용하기 불가능한 휠체어 사용자 등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수직이동 수단이므로, 층 규모와 관계없이 층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설치

### 02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짐을 가진 사람 등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눈에 잘 띄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

### 03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전면공간, 엘리베이터 내부공간은 이용객 수를 고려한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

### 04

엘리베이터 조작설비는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외국인 등 누구나 알기 쉽고 조작하기 쉽게 설치

### 05

승강로비 및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 도착여부, 진행방향, 정지 예정층, 현재의 위치 등에 관한 적절한 운행정보 및 안내를 제공

자세한 사항은  
활동공간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50~54  
참조

## 4.5 엘리베이터 > 승강로비

### 설치위치

저층 건축물일지라도 엘리베이터는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짐을 가진 사람 등의 층간이동에 매우 편리한 수직이동 수단이므로, 층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축**

승강로비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인지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각 층에서는 그 층의 중심공간으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한다. **편의**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의 수직이동 수단과 근접 설치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지하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가깝고, 누구나 인지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활동공간

승강로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내리는 이용자,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되, 이용자 수가 많은 시설은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BF 건축 편의**

승강로비의 활동공간은 복도 등의 통로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 임산부 등이 엘리베이터를 잠시 앉아 기다릴 수 있도록 의자 등을 둘 수 있는 공간 확보를 고려한다.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활동공간

최우수 BF인증기준 : 활동공간 1.5m×1.5m 이상

법적 기준 : 활동공간 1.4m×1.4m 이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 지양

모든 층이 동일한 디자인으로  
된 승강로비



## 권장

층별 서로 다른 색채로  
인지성을 높인 승강로비

자세한 사항은  
승강기 출입문 및 승강기  
내부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50~54 참조

## 4.5 엘리베이터 > 구조

### 승강기 출입문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통과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BF** **편의**

승강장 바닥과 엘리베이터 바닥 사이에는 턱이 없어야 하며, 틈새 간격은 3cm 이하로 한다. **BF** **편의**

사람이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문의 작동이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편의**

엘리베이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출입문 일부에 투시창의 설치를 고려한다.

감지기식 개폐장치의 감지높이 범위는 바닥면으로부터 0.3m~1.4m 이하로 한다. **건축**

노인, 장애인 등은 행동특성상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문의 닫히는 속도를 열리는 것보다 느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승강기 내부

엘리베이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1.4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폭 1.1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BF** **편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고 내릴 수 있도록, 출입문 관찰용 후면 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편의**

노인, 임산부 등이 층간 이동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잠시 걸터 앉을 수 있도록 접이식 의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 연속된 수평 손잡이를 설치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한다.

수평 손잡이의 설치 높이는 0.85m 내외, 지름은 3.2cm~3.8cm, 벽과 손잡이의 이격거리는 5cm 내외로 설치한다. **편의**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승강기 출입문

최우수 BF인증기준 : 통과 유효폭 1.2m 이상

법적 기준 : 통과 유효폭 0.8m 이상(신축 건축물의 경우 0.9m 이상),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의 출입문 틈새 간격 3cm 이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승강기 내부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바닥면적 폭 1.6m 이상, 깊이 1.4m 이상

법적 기준 : 유효바닥면적 폭 1.1m 이상 (신축 건축물의 경우 폭 1.6m 이상), 깊이 1.35m 이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 참고

후면 관찰용 상부 볼록거울 설치

## 참고

양방향 개폐 및 바닥 콜버튼 설치



## 권장

투시창 설치 및 바닥 콜버튼, 후면 관찰용 전면 거울과 시 · 청각 안내 설치 엘리베이터

자세한 사항은  
조작설비 형태 및 기능  
내부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50~54 참조

## 4.5 엘리베이터 > 조작설비

### 형태 및 기능

엘리베이터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하는 스위치 조작설비의 높이는 성인 및 시각 장애인용은 1.5m, 어린이 및 휠체어 사용자용은 0.85m 내외로 하며, 층수 버튼, 개폐버튼, 비상호출 및 상호통화용 버튼에 점자표기를 하여야 한다. **BF**

조작설비는 센서식이 아닌 양각 형태의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병기한다. **편의 건축**

조작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 이상이어야 한다. **BF**

승강기내부 가로 조작설비는 밑면이 25° 정도 들어올려지거나 손잡이에 연결하여 설치된 형태로 한다. **BF**

### 조작반의 배열

가로형 조작반은 상단 좌측에서부터 비상호출버튼(인터폰) - 문자정보판(층수 및 방향표시) - 개폐버튼(오른쪽 열림, 왼쪽 닫힘)의 순서로 배열하며, 하단에는 층수 버튼을 배열한다.

세로형 조작반은 아래에서부터 개폐버튼(오른쪽 열림, 왼쪽 닫힘) - 층수 버튼 - 비상호출버튼(인터폰) - 문자 정보판(층수 및 방향표시)의 순서로 배열한다.

조작반의 층수 버튼은 세로형일 경우 낮은 층수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지그재그로 배열한다.

조작반의 점자는 가로형일 경우 층수 버튼의 상단에 나머지는 좌측에 표기하며, 세로형일 경우 모든 버튼의 좌측에 점자를 표기한다.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형태 및 기능

호출버튼 · 조작반 · 통화장치 등 승강기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 : 0.8~1.2m, 스위치 수가 많아 1.2m 이내 설치 불가능시 1.4m 까지 가능

승강기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 : 진입방향 우측에 가로형으로 높이 0.85m 내외로 설치 (유효바닥면적이 1.4m×1.4m 이상인 경우 진입방향 좌측 설치가능)

조작설비의 형태 : 버튼식,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 조작반 · 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판 부착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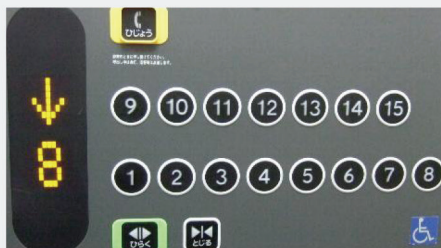
## 지양

조작버튼의 색상이 동일하여 층수 등 인지하기 어려운 설치 사례



## 권장

조작하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양각형태의 조작버튼



자세한 사항은  
안내장치 및 점형블록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50~54 참조

자세한 사항은  
안내장치 세부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4.5 엘리베이터 > 유도 및 안내

### 안내장치

각 층의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의 도착 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 장치를 설치하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한다. 편의

엘리베이터 내부의 층수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편의

토글방식의 조작설비를 설치한 경우 두 번째 눌러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 BF

층별로 출입문의 위치가 다르다면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문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편의

층수 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한다. 편의

엘리베이터의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한다. 편의

### 점형블록

조작버튼의 전면에는 0.3m 전방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마감재를 달리한다. 편의

## 참고자료



### 권장

인지성을 고려한  
엘리베이터의 픽토그램 및  
사인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

다양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 난간, 음성안내시설 및 안내판 설치

## 4.6 에스컬레이터 > 기본지침

### 01

에스컬레이터는 상하층의 이동수단으로서 매우 유용한 설비이지만, 어린이, 임산부, 노인, 시각장애인, 보행장애인 등에게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직이동 수단이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의

### 0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디딤판 폭과 끝부분 처리, 손잡이 형태, 이동 속도 등을 세심하게 고려

### 03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변과 다르게 설치

## 4.6 에스컬레이터 > 구조

### 유효폭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편의

유효폭 1.2m 이상은 양측 손잡이를 잡을 수 없으므로 별도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

### 디딤판

휠체어를 수평으로 고정시킨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을 3매 이상 또는 1.2m 이상 수평상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편의 건축

디딤판의 끝부분은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색상, 재료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건축

### 손잡이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 손잡이를 설치한다. 편의

손잡이는 움켜잡기에 용이한 형태와 구조로 되어야 한다. 건축

에스컬레이터 양끝에 수평 이동손잡이를 1.2m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

시작과 끝지점에는 높이  $0.85\text{cm} \pm 5\text{cm}$ , 길이 1.0m 이상의 수평 고정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층수 ·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편의

### 속도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는 1분당 30m 이내로 한다. 편의

자세한 사항은  
디딤판 및 손잡이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55~57 참조

## 참고자료



### 지양

에스컬레이터만 설치할 경우  
수직이동 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사례



### 권장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계단,  
엘리베이터를 인접 설치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례

자세한 사항은  
활동공간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55~57 참조

## 4.6 에스컬레이터 > 승강장

### 활동공간

승강장 전면은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

수평 고정손잡이가 있는 경우에는 손잡이의 시작지점 이전을 휠체어 활동 공간으로 본다. **건축**

### 마감

승강장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주변 바닥포장재와 질감, 색상 등의 차이를 두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건축**

### 안내장치

에스컬레이터 양 끝 부분의 가까운 곳에는 진입가능여부를 표시하고 음성안내 장치 등의 필요한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에스컬레이터 진입부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한다.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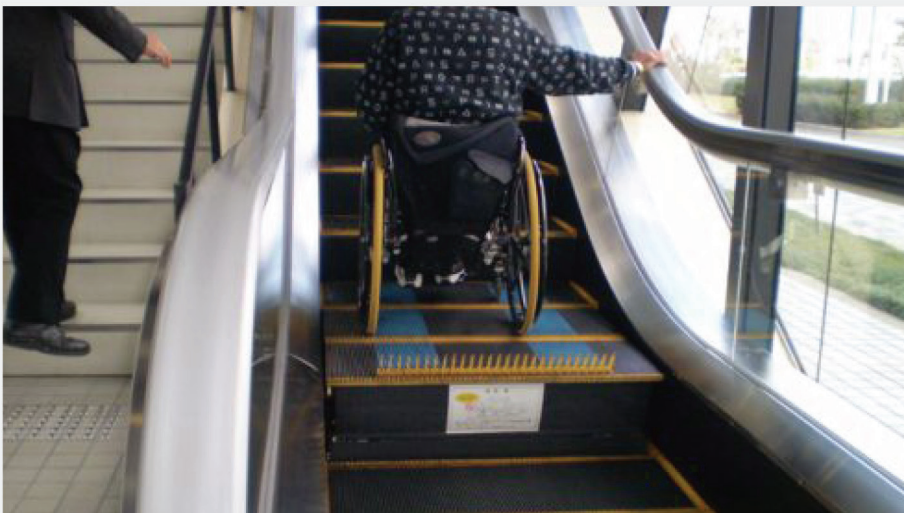
## 권장

인지성을 고려한 엘리베이터  
이용 및 운영 관련 사인



## 권장

진입가능여부, 진행방향,  
층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장치



## 참고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 일본



## 4.7 방재 및 피난시설 > 기본지침

### 01

재해시 이용자가 쉽고 안전하게 도로나 공지에 다다를 수 있는 피난경로를 확보하고, 소방대의 소화활동 및 구조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 02

화재시 화염과 연기로부터 이용자의 위험성과 물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화 및 방연 계획을 적절히 배치

### 03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인 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축물 외부로 대피가능한 구조로 계획

### 04

피난방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난구의 위치가 위급 상황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피난구까지 연속적으로 안내되는 구조로 계획

## 4.7 방재 및 피난시설 > 방재계획

### 건축물과 대지

외부공간에는 화재 등 재해시의 안전대책상 피난경로를 확보하고, 소방대의 소화 및 구조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이용자가 용이하게 도로나 공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경로 및 소방대가 건축물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한다.

복수의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 상호 연소방지를 위해 가급적 이격시켜 계획한다.

### 평면 및 단면 계획

화재시 화염과 연기를 좁은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과 물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방화 및 방연 구획을 적절히 배치한다.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벽, 바닥, 방화문 등의 부재는 화재에 대하여 소정의 시간 및 내화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단, 발코니, 비상용 엘리베이터, 방재센터 등 피난 소방활동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피난시 이용자가 피난계단의 위치를 알기 쉽고 용이하게 다다를 수 있는 있어야 하며, 화염과 연기의 반대 방향으로 피난이 되도록 평면계획한다.

복수의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계단은 화염과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다방향 피난이 확보되게 하고 가급적 분산배치하도록 한다.

피난경로에는 순차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공간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복도, 로비, 전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등을 안전구획으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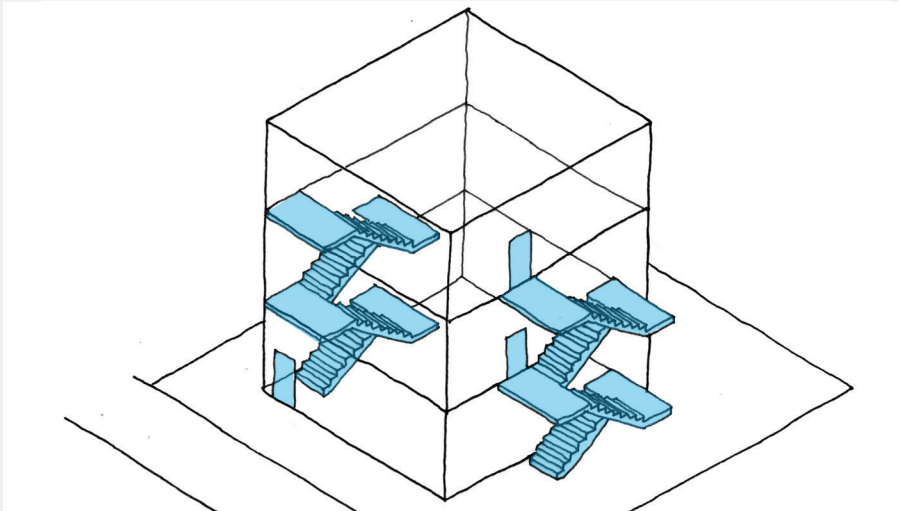
### 내장 및 방재설비계획

내장재 제한 및 방재설비 설치에 대한 세부내용은 건축법과 소방법에 준한다.

내장재는 기본적으로 불연·준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 급격한 연소 확대를 방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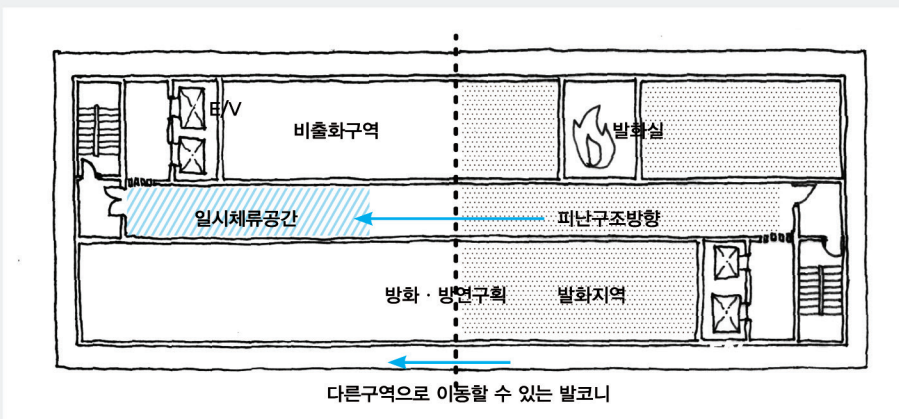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시설 규모가 작더라도 화재발생 초기단계에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권장한다.

## 참고자료



## 권장

공연장이나 집회장 등 사람들이 집중해 있는 시설이나, 재난상황의 움직임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경우, 피난 경로를 확보한 옥외 피난계단의 추가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36조



## 권장

2방향 이상의 피난경로를 확보한 평면계획 예시



## 권장

비상시 대피를 위해 유도용 비상 조명을 설치한 복도 및 계단 손잡이

## 4.7 방재 및 피난시설 > 경보 및 피난시설

### 피난방법

관련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계획 및 피난 훈련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한다. **BF**

공연장 등 관람석이 있는 시설은 비상시 장애인 이용자 대피에 대한 책임제를 구성하도록 한다. **BF**

피난경로는 시설규모가 작더라도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며, 막다른 복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코니 등을 설치한다.

### 피난구

공용공간에 피난구를 설치하며, 각 실에서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BF**

피난구까지 안내시설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며, 연기 등에도 확인이 가능한 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BF**

### 피난의 구조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층별, 주요실 별로 외부피난이 가능한 옥외공간, 발코니 등이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모든 층에서 직접 지상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BF**

건축물내부의 화염과 연기로부터 안전한 옥외공간이나 피난발코니 등의 일시 대피공간은 여러 명이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지상 등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기존시설인 경우에는 피난공간이 외부에 설치되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소방차 등에 의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BF**

### 피난안내도

피난안내도에는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피난구까지의 피난동선을 표기한다.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시각 · 청각  
장애이용 경보 및  
피난설비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

시각경보기(경광등)은 남여화장실 내부(다목적화장실 포함), 탈의실(샤워실에서  
확인가능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함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모든실에 시각경보기를 반드시 설치  
시각 ·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는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함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피난구 설치

피난방법 : 관련 소방서와 연계한 정기적인 피난훈련에 대한 시행계획 구비,  
피난훈련시행을 위한 매뉴얼 구비

피난구까지의 위치 : 각실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각각 설치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 : 연기 등에도 확인 가능한 안내시설 설치

피난의 구조 : 모든 층의 피난이 직접 지상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주요 실별로 휠체어 사용자 등이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발코니 등 설치

## 참고자료

## 권장

피난구의 물건적재 금지 사인



## 권장

피난안내도 설치 예시



## 권장

다양한 경보 및 피난시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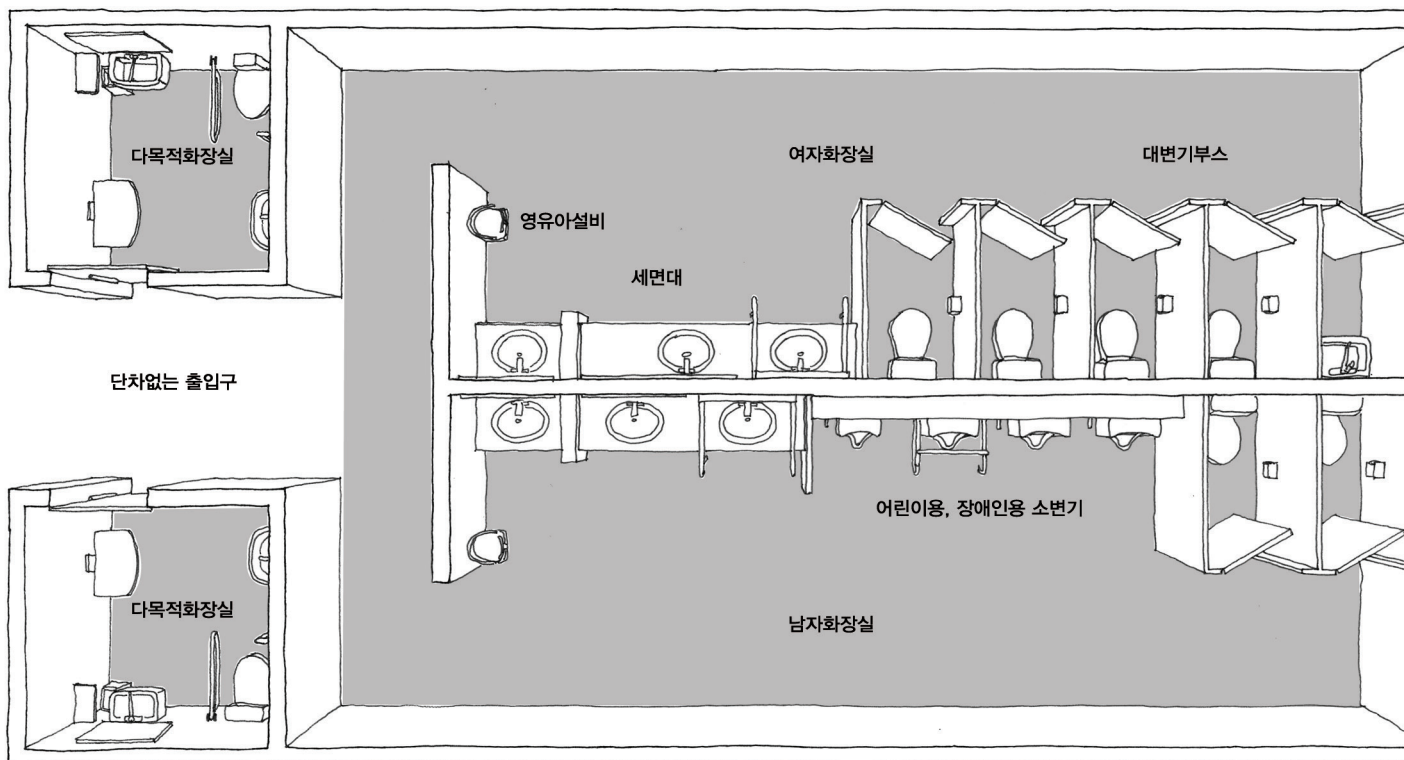


비상구 유도등

시각경보기

피난경보기

무선알림이



## 05

## 위생공간

## 5.1 화장실 &gt; 기본지침

## 01

화장실은 누구나 일상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생활공간이며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동반하는 장소이므로 매우 세밀한 배려 필요

## 02

화장실은 영유아 동반자, 노인, 임산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와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

## 03

폭이나 천정고는 가급적 넓고 높게 하여 폐쇄감을 없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추고 생리, 위생 이외의 문화적인 욕구까지 충족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계획

## 04

화장실은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절감과 악취가 없는 쾌적한 환경으로 계획

## 05

일반화장실에 영유아 동반자나 어린이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며,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남녀화장실에 각각 1개 이상 설치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을 위한 유도 및  
안내의 세부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참조

## 5.1 화장실 > 접근 및 안내

### 위치

화장실은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편의

장애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과의 통합배치를 고려하여  
주출입층 외에도 각 층마다 설치하여 사용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보 한다.

### 접근통로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동반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화장실의 접근  
유효폭은 단차가 없는 1.5m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F

기존 건축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18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BF

### 출입구(문)

남녀화장실을 완전 분리시켜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여, 남녀가 서로 마주치지  
않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의 위치나 방향 등을 결정한다.

화장실 출입문은 설치하지 않거나 자동문을 설치한다. BF

화장실 내·외부 상호간은 물론, 출입문으로 인해 문턱이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BF

출입구의 유효폭은 1.2m 이상을 확보한다. BF

### 유도 및 안내

복도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장실 출입구 주변 벽, 바닥, 천장마감재 등을  
달리하여 남녀화장실, 다목적화장실의 시인성을 높이도록 한다.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알기 쉬운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녀 구분 안내표지,  
화장실 내부를 안내하는 축지도식 안내표지, 음성유도장치 등을 설치한다. 편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이나 바닥마감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위치	최우수 BF인증기준 :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 층수의 50% 이상 설치 (다목적화장실 설치 시 가산 평가시 추가 배점)
접근통로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5m 이상 확보
출입구(문)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2m 이상 확보 법적기준 : 유효폭 0.8m 이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 지양

인지하기 어려운 화장실  
안내사인과 다른 실과 구분  
하기 어려운 출입구 주변



## 권장

화장실 내부 구조를 알기  
쉬운 부드러운 촉감의  
촉지평면제시

## 권장

여유 있는 통로와 단차가  
없는 화장실 출입구

자세한 사항은  
바닥마감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62~70 참조

## 5.1 화장실 > 마감 및 조명

### 마감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BF** **편의**

타일 혹은 판석마감인 경우에는 0.5cm 이하의 줄눈으로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한다. **BF**

바닥, 벽, 천장의 마감재는 오염에 강하고 자국, 흠집이 생기지 않는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바닥마감재는 특히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틈새가 적고, 파손시 마감재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쾌적하고 청결한 느낌을 주는 색채의 마감재를 사용하며, 실내 전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화장실의 물청소 등 배수를 위한 바닥구배는 1/100 이하로 최대한 완만한 기울기가 되도록 한다. **편의**

### 조명

화장실은 외기에 면하게 배치하여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한다.

저녁 시간이나 흐린 날을 기준으로 조도기준을 설정하여 부족한 조도를 향상시키고 눈부심 없는 부드러운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조명은 발열량이 적고 고효율인 LED 조명기구를 활용하도록 한다.

실내 마감재와 어울리는 조명등과 색상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화장실 입구, 통로, 단위 부스, 세면기, 소변기 등에 적합한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위치별로 조도를 확보한다.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활동공간

최우수 BF인증기준 : 활동공간 1.5m×1.5m 이상

법적 기준 : 활동공간 1.4m×1.4m 이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마감

최우수 BF인증기준 : 물이 묻어도 미끄러지지 않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 바닥마감, 타일이나 판석마감의 경우 줄눈 0.5m 이하 설치

법적 기준 :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바닥마감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 지양

법적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청결하고 쾌적한 분위기가 부족한 화장실



## 권장

바닥, 벽의 색채 및 재질감이 다른 마감재를 적용하여 쾌적성 및 인지성을 향상시킨 화장실

## 권장

창문은 없지만 조명을 통해 밝은 분위기 연출

## 5.1 화장실 > 안전 및 범죄예방

### 안심비상벨 및 CCTV

안심비상벨은 화장실 안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안심 비상벨을 누르면,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에 적색불이 켜지면서 경보음이 울려 위급 상황임을 알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112에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안심비상벨의 설치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 특히 여성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비상벨은 다목적화장실, 세면대 주변, 대변기부스마다 손이 닿기 쉬운 높이에 설치한다.

비상벨에 대한 설명 및 작동법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한다.

비상벨 경광등 수신기는 화장실 입구에 설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경광등 사이렌 소리가 날 때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추가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화장실 입구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CTV 설치를 고려한다.

### 스마트폰 활용

비콘(블루투스 송수신)과 스마트 폰을 활용, 안심존을 형성하여 위급 상황 시 스마트폰 전원버튼을 누르거나 흔들게 되면, 자신의 위치 정보를 보호자 및 112로 전송하는 서비스 등을 활용한다.

## 5.1 화장실 > 대변기부스

### 구조 및 형태

대변기부스의 유효바닥면적은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을 확보한다. 건축

대변기부스 출입문의 유효폭은 0.8m 이상을 확보하며, 여닫이문일 경우 문 개폐 방향은 통로 쪽이 아닌 대변기부스 안쪽으로 열리도록 한다. 건축

부득이하게 다목적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못한 경우, 일반화장실 내에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대변기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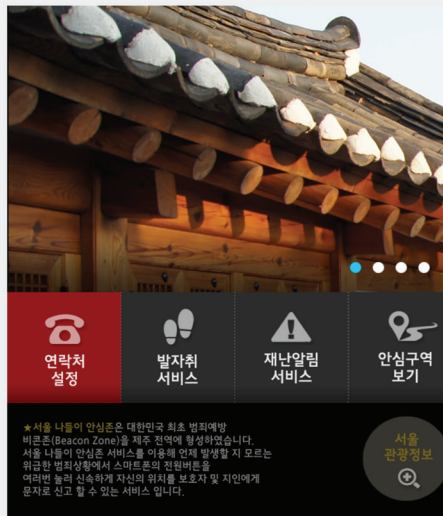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대변기부스의 크기 등  
세부기준: 「본 가이드라인」  
p.244 참조

## 참고자료



### 권장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안심비상벨 설치



### 권장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예방  
서비스 예시

자세한 사항은  
잠금장치 및 제정장치의  
세부기준 :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참조

## 잠금장치 및 제정장치

대변기부스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편의

잠금장치는 견고하면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고, 비상시 외부에서 열수 있는 구조 여야한다. 편의

세정 장치는 광감지식, 누름버튼, 레버식 등 작동이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시각 장애인 등의 이용도 고려하여 점자를 표기한다. 편의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한다. 편의

## 기타 설비

대변기부스 일지라도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이 잡고 일어나기 쉽도록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대변기부스 내에 가방이나 짐을 둘 수 있는 선반이나 옷 등을 걸 수 있는 후크 등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대변기부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생기구의 종류를 표시하고 연령, 장애유무, 영유아 동반 등 해당 이용자에 대한 시각정보를 픽토그램 등으로 제공한다.

## 참고자료



## 권장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열고 닫기 쉬운 접이문을  
설치하고 대변기, 형태,  
영유아거치대 등 편의시설  
비치 유무의 안내제공



## 권장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있는  
알기 쉬운 세정버튼 및 각종  
편의설비를 비치한  
대변기부스



## 지양

변기 뒤편에 위치하여 변기  
뚜껑을 닫아야 누를 수 있어  
사용하기 힘든 세정버튼



## 권장

색상 대비를 통해 변기의  
위치를 찾기 쉽도록 계획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위생기구의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62~70 참조

## 5.1 화장실 > 위생기구

### 대변기

대변기는 비데 기능이 있는 양변기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일정 비율의 화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하는 대변기는 벽걸이형 양변기로 하며, 바닥부착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않도록 한다. 편의 BF

대변기의 좌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의 범위 내로 한다. 편의 건축

### 소변기

장애인과 영유아를 위한 소변기는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한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소변기는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고 후면에는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소변기는 화장실 바닥면을 청소하기 쉽게 가급적 벽면부착형으로 설치한다.

### 세면대

세면대는 목발사용자 등을 위해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편의

여자 화장실의 세면대는 파우더 룸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파우더 룸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세면대는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을 설치한다.

거울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전면거울을 설치하거나 거울 상단부분을 15°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설치한다. 편의 BF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를 설치하며, 자동급수가 아닌 경우에는 냉온수 구분을 색상과 점자를 병기한다. 편의

수전은 겨울철에는 고려하여 온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세면대 주변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핸드드라이어, 종이타올, 선반, 외투걸이, 우산걸이 등을 설치한다.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대변기의 손잡이	대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 손잡이는 양쪽 모두에, 수직 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 가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변기의 손잡이	소변기의 양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세면대의 손잡이	수평 손잡이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 권장

벽걸이형 위생기구를 설치하여 청소가 용이하고, 마감재와 위생기구의 색상 및 채도 대비



## 권장

세면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따뜻한 재질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고, 소지품을 둘 수 있는 선반, 가방걸이 등 설치

## 권장

광감지식 수도꼭지와 우산걸이, 핸드드라이어 등의 편의설비를 갖춘 세면대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거치대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62~70 참조

## 5.1 화장실 > 영유아 설비

### 일반사항

어린이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은 어린이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다.

어린이용 화장실은 부모의 동행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며, 밝고 청결하며 경쾌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색채계획, 마감재 등을 선정한다.

어린이용 화장실이나 어린이용 설비는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며, 어린이용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의 위생기구는 어린이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위생기구

어린이용 대변기는 어린이전용 양변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일반 양변기와 겸용할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 좌대를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 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면에서 0.2~0.3m의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0.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 기타 설비

여자화장실은 물론 남자화장실에도 영유아 동반자를 위해 기저귀나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접이식 기저귀교환대를 보호자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세면대 주변에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의 핸드드라이어와 영유아거치대를 설치한다.

영유아거치대가 있는 대변기부스는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어린이용  
위생기구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어린이용 대 · 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 단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 제외

어린이전용 대변기 설치 또는 일반인용 변기에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 설치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용으로 설치할 경우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면에서 0.2~0.3m 이하의 높이로 설치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0.6m 이하로 설치 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설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참고자료



## 권장

어린이의 신체특성에 맞는  
위생기구 설치

## 권장

접이식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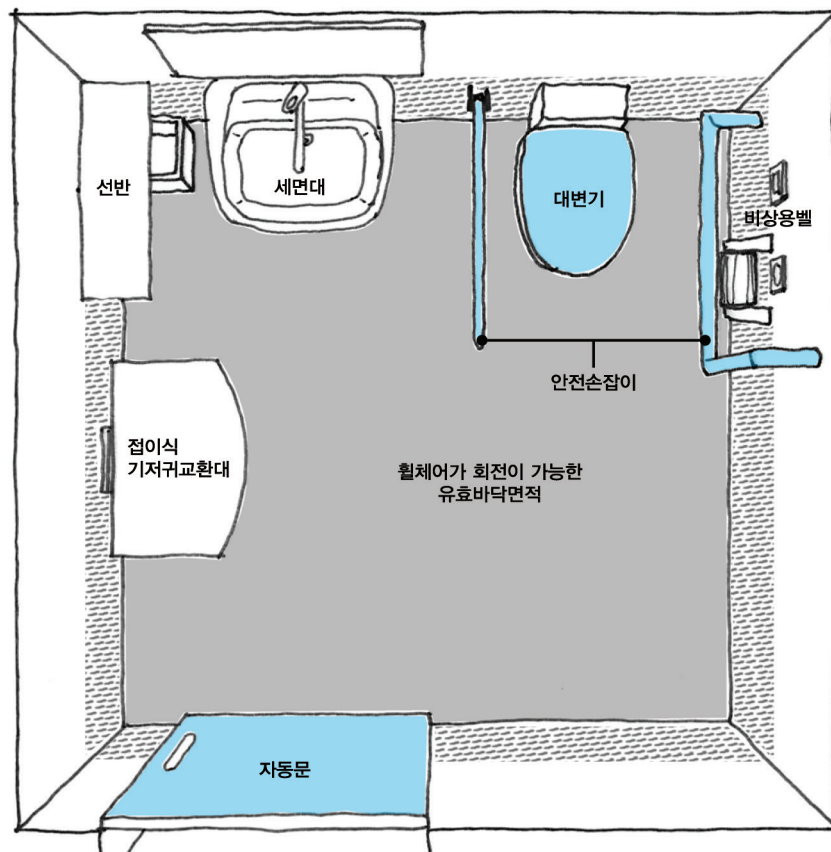


## 권장

아동 동반 이용자가 이용가능  
하도록 설치된 영유아 임시  
의자

## 권장

영유아 팬티형 기저귀 또는  
의복 탈착용 접이식 교환대



## 5.2 다목적 화장실 > 기본지침

### 01

화장실 출입구에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기 보다는 남녀 구분 없이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다목적 화장실 설치

### 02

다목적 화장실은 각 층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가급적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편마비 등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비의 위치에 서로 다른 2개소 설치 권장

### 03

휠체어 사용자는 물론 누구나 이용하기 쉽도록 출입문, 유효바닥면적, 위생기구, 손잡이 등을 적재적소에 설치

### 04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기저귀교환대 등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설비나 가구 설치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들이 이용가능한 크기  
및 구조의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62~70 참조

## 5.2 다목적화장실 > 기능 및 구조

### 기능 및 위치

다목적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설치하여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이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한다.

장애인, 임산부,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화장실은 이용자가 많은 주요 층에서는 최소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BF**

다목적화장실은 인지와 접근이 용이한 통로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일반화장실 내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장실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건축**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휠체어 사용자, 시각 및 청각장애인, 왼손잡이 또는 오른손잡이 등 다양한 신체 상황 및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위생 및 편의 설비의 위치가 서로 다른 2개소의 다목적화장실을 설치한다.

### 구조 및 형태

화장실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가족 혹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위치로 한다.

다목적화장실 출입문의 전면공간은 휠체어나 유모차가 방향 전환할 수 있는 폭 1.5m 이상을 확보한 통로에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BF**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1.0m 이상을 확보하며, 자동문으로 설치한다. **BF**

다목적화장실의 유효 바닥면적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BF**

기존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적정 유효바닥면적 기준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편의**

대변기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대변기 측면에는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편의**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기능 및 위치

최우수 BF인증기준 :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 층수의 50% 이상 설치  
(다목적화장실 설치 시 가산 평가시 추가 배점)

## 구조

최우수 BF인증기준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 1.2m 이상 확보, 유효바닥면적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자동문, 자동문 버튼은 0.8m~0.9m 높이와 코너로부터 0.4m 이격 설치  
법적기준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유효바닥면적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 지양

법적 기준에 맞도록 설치되었으나 직관적으로 남녀 구분이 되지 않는 화장실



## 권장

누구나 사용 가능한 다목적 화장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들이 이용가능한  
손잡이, 거울, 세정장치 등  
기타 설비의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62~70 참조

## 5.2 다목적화장실 > 설비

### 위생 및 편의설비

다목적화장실에 설치할 수 있는 위생 및 편의설비는 비데형 대변기, 세변기, 소변기 등의 위생기구를 기본으로 간이의자, 영유아 거치대, 기저귀교환대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절한 편의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비상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비상호출장치는 대변기에 앉은 자세에서 또는 바닥에 쓰러진 경우에도 이용과 조작이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BF** **편의**

출입문은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며, 잠금장치는 비상시 외부에서 열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BF**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누름버튼, 레버식 등 작동하기 쉬운 형태를 설치하며,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점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편의**

바닥면 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를 위해 가방, 지팡이, 우산, 옷, 짐 등을 잠시 올려놓거나 걸 수 있는 접이식 또는 수납형 선반이나 후크 등을 설치한다.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편의**

### 유도 및 안내

다목적화장실은 손잡이와 같은 높이에 휠체어 사용자, 노인, 임산부, 유아 및 동행한 사람 이외에는 사용을 양보해 달라는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건축**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BF**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위생 및  
편의설비

최우수 BF인증기준 :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가능한 휴지걸이 등의 기타 설비, 광감지식 및 누름버튼 세정장치 설치, 비상호출벨 및 등반이 설치, 유아용거치대 설치, 조명 스위치 및 휴지걸이 등의 높이 0.8m~1.2m 이내

법적기준 : 시각적 설비 및 잠금장치 설치,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 기타 설비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 지양

법적기준에 의해서만  
설치된 차가운 느낌의  
장애인전용화장실

## 권장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위생기구 및 기타 설비 등이  
벽마감재와 대비를 이루어  
인지하기 쉽고 청결한  
분위기를 주는 다목적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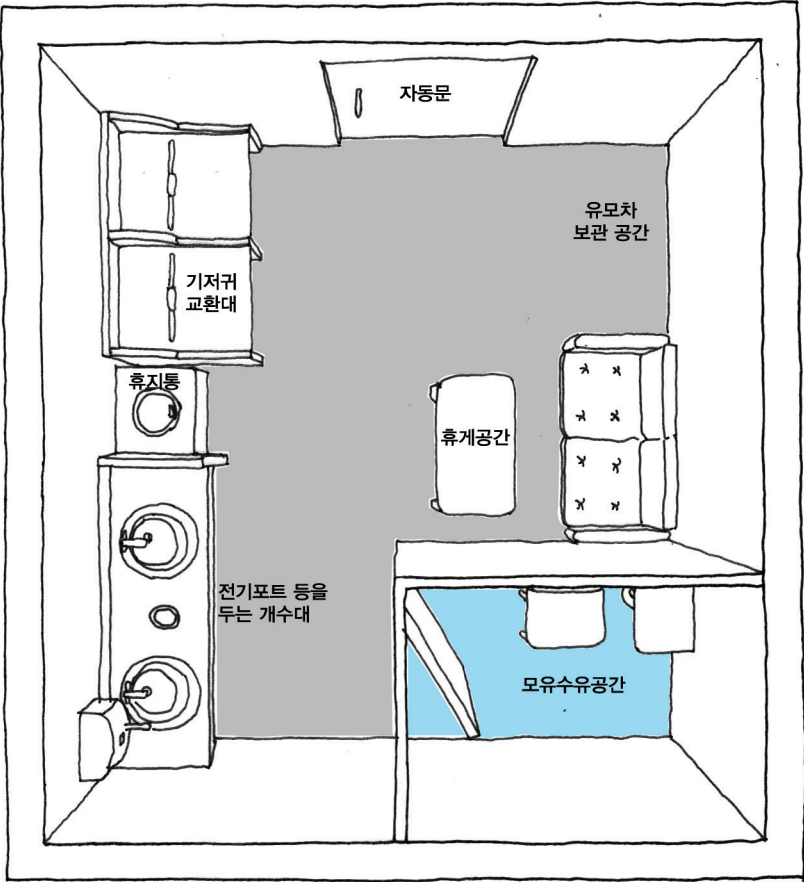


## 권장

건축물 용도에 따라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위생기구 설치

## 권장

입출입 편의를 위한 잠금장치  
검용의 대형 출입버튼



## 5.3 수유실 > 기본지침

### 01

임산부의 휴식 및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수유실은 유모차는 물론 휠체어 사용자 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02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

### 03

수유실은 남녀가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모유를 주는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

### 04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기저귀교환대, 임산부나 노인을 위한 간이침대 등 필요한 설비나 가구 설치

### 05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고,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임산부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배려

## 5.3 수유실 > 위치 및 접근

### 위치

임산부의 휴식 및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수유실은 로비나 민원실 등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접근로

수유실로 접근하는 통로의 최소 유효폭은 휠체어나 유모차의 통행을 고려하여 1.5m 이상을 확보한다. **BF**

접근로에는 단차나 기울기가 없이 평탄하게 통로가 되도록 한다. **BF**

### 출입문

통로나 로비 등에서 수유실 내부의 직접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출입구 계획에 유의한다.

휠체어나 유모차의 출입을 위해 자동문으로 하거나 적은 힘으로도 개폐하기 쉬운 미닫이문으로 설치한다.

출입문의 유효폭은 유모차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여유있게 확보한다. **편의**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위치

법적기준 :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접근로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5m 이상 확보, 전혀 단차 없음

## 참고자료



### 권장

수유에 필요한 공간 마련  
및 기저귀교환대, 세정을  
위한 세면대, 오물처리  
휴지통 등을 설치한 쾌적한  
수유공간



## 5.3 수유실 > 구조 및 설비

### 구조

수유공간과 분리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며,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편의**

기저귀 교환 등을 위해 남성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모유수유 공간은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독립된 실로 설치한다.

수유실 내부의 출입문 주변에 유모차를 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편의**

세면대, 온수기 등을 둔 선반은 하부에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깊이로 한다. **편의**

### 편의설비

수유실에는 물을 끓일 수 있는 순간온수기, 전기포트 등의 설비를 갖추고, 분유통 소독이 가능한 설비,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개수대, 기저귀전용 휴지통 등을 비치한다.

기저귀를 갈아입힐 수 있는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가능하며, 주변에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나 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수유를 위한 아기침대 및 영유아거치대 등을 설치한다.

임산부 등이 앉아서 쉴 수 있거나 수유할 수 있는 편안한 의자나 소파 등을 비치한다. **BF**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구조

법적기준 : 상단높이 0.85m 이하 하단높이 0.65m 이상의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 설치, 활동공간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설비

최우수 BF인증기준 : 휴게시설 내부 공간에 별도의 수유 공간 마련, 수유할 수 있는 의자 등 설치, 수유에 편리하도록 전기콘센트와 포트 등 설치, 기저귀 교환대와 세면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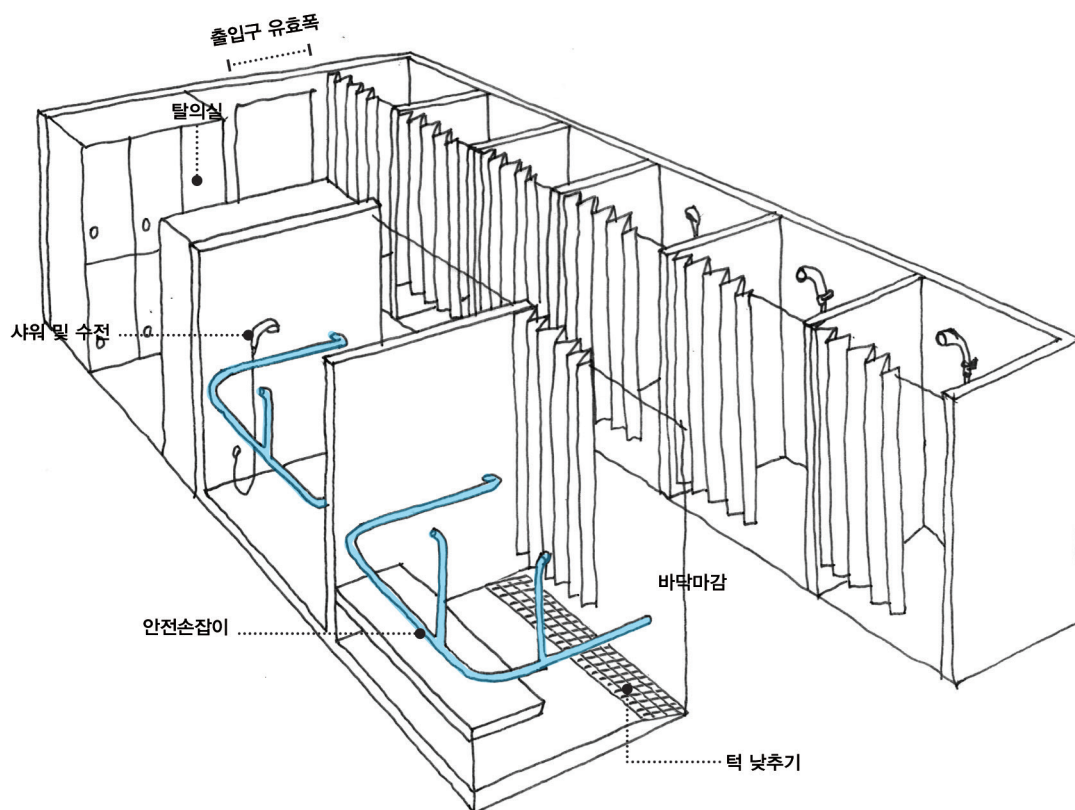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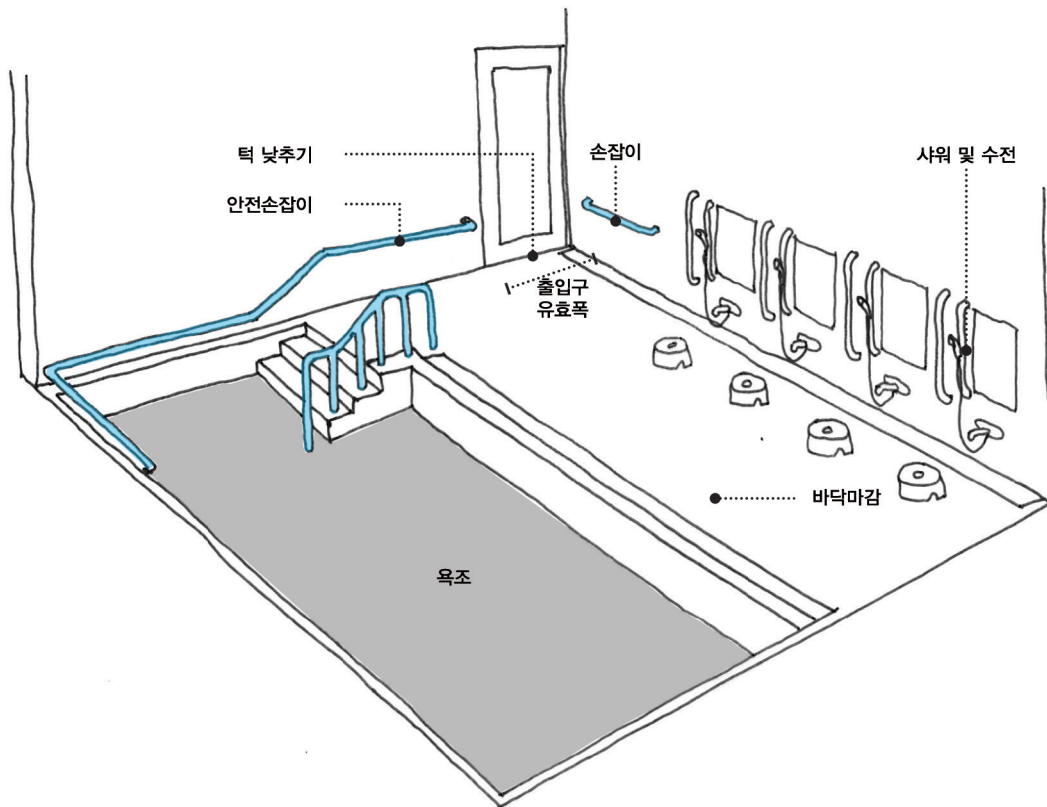
## 참고자료



## 권장

수유를 위해 개수대, 전기 포트, 기저귀교환대, 모유실 등 각종 편의설비를 갖춘 수유실





## 5.4 욕실 · 샤워실 · 탈의실 > 기본지침

### 01

욕실 및 샤워실은 물을 사용하는 장소이므로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의 포장재료, 부착물, 단차, 손잡이 등 안전에 특별히 배려하여 설치

### 02

노인 등 입욕이나 샤워 전후의 온열환경변화에 따른 신체상황의 급변을 배려

### 03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편안하며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배려

### 04

욕실, 샤워실, 탈의실은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동일한 층에 설치

### 05

욕실과 샤워실은 출입, 보행, 기립, 착석, 입욕 등의 행동 중에 쓰러지지 않도록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신체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적재적소에 설치

자세한 사항은  
기타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 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84~85 참조

## 5.4 욕실 · 샤워실 · 탈의실 > 일반사항

### 출입문

욕실, 샤워실, 탈의실의 접근 통로는 휠체어 사용자 등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유효폭 1.5m 이상을 확보하며, 접근 통로에서 문을 열더라도 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출입문은 미닫이문이나 접이문 등 개폐하기 쉬운 구조로 한다. 편의

욕실, 샤워실, 탈의실은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수증기 등으로 시야가 흐린 점을 고려하여 출입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한다. 건축

### 바닥

욕실 및 샤워실은 수증기 등으로 시야가 흐려 작은 문턱이나 단차에도 걸려 넘어지기 쉬우므로 탈의실 등 바닥면과 동일하게 설치하여 단차 없이 출입하도록 한다. 편의

바닥마감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편의

욕실,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1/30 이하로 하되,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완만한 기울기로 한다. 건축 편의

입욕이나 샤워 전후의 체온변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난방을 적극 권장하며, 이는 일정한 온도유지는 물론 미끄럼방지 등에 효과적이다. 건축

### 기타 설비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온수에 대해 색상 및 점자를 표기한다. 편의

자동 온도조절 또는 냉·온수의 범위를 고정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건축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바닥

법적기준 : 바닥면 기울기 1/30 이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 권장

욕실 출입문의 단차 제거



### 권장

터치식, 광감지식 등  
사용하기 쉽고 픽토그램이나  
점자를 표기한 수도꼭지



## 5.4 욕실 · 샤워실 · 탈의실 > 욕실

### 욕조 및 활동공간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범위 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

욕조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접근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건축

욕조 측면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한다. BF

### 기타 설비

욕조 주위에는 반드시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BF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샤워기, 욕조 주변에 앉고, 서고, 걸을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건축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에서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한다. 편의

어린이, 노인, 성인, 장애인 등 자신의 신체 상황에 맞는 샤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형 샤워수전을 설치하거나 다양한 높이의 샤워기 후크를 설치한다.

### 참고자료



**권장** 욕실 내에서 걷고 앉고 서는 동작을 돕도록 적재적소에 설치한 손잡이



**권장** 욕조로의 이동을 보조하는 벤치 및 손잡이 설치

## 5.4 욕실 · 샤워실 · 탈의실 > 샤워실

### 유효바닥면적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샤워실(샤워부스)을 최소 1개소 이상 확보한다.

샤워실(샤워부스)의 유효바닥면적은  $0.9\text{m} \times 0.9\text{m}$  또는  $0.75\text{m} \times 1.3\text{m}$  이상을 확보하되,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text{m} \times 1.5\text{m}$  이상의 크기를 권장한다. 편의

### 기타 설비

샤워용 접이식 의자는 바닥면으로부터  $0.4 \sim 0.45\text{m}$  이내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샤워기 주변에 앉고, 서고, 걸을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건축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한다. 편의

어린이, 노인, 성인, 장애인 등 자신의 신체 상황에 맞는 샤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형 샤워 수전을 설치하거나 다양한 높이의 샤워기 후크를 설치한다.

### 참고자료



**권장** 샤워실 바닥면이 욕실과 연결되어 평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접이식 의자와 손잡이 설치



**권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샤워기, 욕조 주변에 대비되는 색상의 손잡이 설치

## 5.4 욕실 · 샤워실 · 탈의실 > 탈의실

### 탈의 및 수납공간

여러명이 사용하는 탈의실의 출입구와 유효폭은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1.2m 이상을 확보하여 가구 및 설비 등을 배치하도록 한다. **건축**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탈의실의 수납공간은 바닥면으로부터 0.4~1.2m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편의**

탈의부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1.5m 이상의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하도록 한다. **BF**

### 기타 설비

탈의실 내에 비치하는 의자 등은 노인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0.4m 정도의 높이로 한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앉고, 서고, 걸을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건축**

탈의실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입욕 또는 샤워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세면대 및 기타 편의설비를 갖추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 참고자료



**권장** 탈의실 옷장 밑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 확보  
(출처: 에이블뉴스)



**권장** 다같이 사용할 수 있는 수납공간



## 통합·연계한 기준 및 지침

- BF**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 이동**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편의**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도로** (4)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 (5)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 가로** (6)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 공원** (7) 서울형 장애물없는건물 인증제 [공원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건축** (8) 서울형 장애물없는건물 인증제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BF공원** (9)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
- 자전거** (10)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 버스** (11)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 철도** (12)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강병근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최 령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
	변혜령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부소장
	김선태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이사
	이수진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선임연구원
	안미령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선임연구원
	성기창	한국복지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과 교수
	박광재	한국복지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과 교수
	신동홍	건국대학교 연구처 연구교수
	김상운	건국대학교 연구처 연구교수
	강태성	건국대학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박수연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이재석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유가현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이주형	건국대학교
	변성헌	건국대학교
	김현준	건국대학교
연구보조원	이주연	건국대학교
	박귀현	건국대학교
편집/삽화/디자인	강채인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김혜연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행정	정미영	건국대학교
	임지나	건국대학교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

발행처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발행일	2017. 1	
서울특별시	고홍석	문화본부장
	변태순	디자인정책과장
	정미경, 윤문경(전)	유니버설디자인팀장
	민병아, 최성옥(전)	유니버설디자인팀 담당
연구기관	건국대학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연구소 사단법인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Copyright©2017.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ll Right Reserved.

